

M 45-9 / 2001. 5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9호 (2001년 5월)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담당 김 태 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일본 신선채소 일반세이프가드 발동	3
일본 세이프가드 발동과 생산자·소비자 반응	9
일본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채소산지 대응	15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3)	22
중국 2000년 농촌경제 현황	27
중국 2001년 농촌경제 전망	35
중국 농가소득 증가율 4년 연속 하락	38
중국의 채소산업 특징	44
프랑스 경영국토계약(CTE) 체결 부진	46
세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식부동향	49

II. 국제기구 논의동향

WTO 체제의 수출보조 현황과 협상 쟁점	54
------------------------------	----

III. 농산물무역 정보

중국 농산물무역의 동향과 전망	68
------------------------	----

IV.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4)	75
---------------------------------	----



농업 농정 동향

일본 신선채소 일반세이프가드 발동

일본 세이프가드 발동과 생산자·소비자 반응

일본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채소산지 대응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3)

중국 2000년 농촌경제 현황

중국 2001년 농촌경제 전망

중국 농가소득 증가율 4년 연속 하락

중국의 채소산업 특징

프랑스 경영국토계약(CTE) 체결 부진

세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식부동향

일본 신선채소 일반세이프가드 발동

1. 잠정조치 발동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SG)를 발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세이프가드는 공산품을 포함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발동되는 셈이다. 대상은 파, 생표고, 골풀 등 3품목으로서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이며¹, 기간은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200 일간의 잠정발동²이다.

2. 관세할당제도 적용

수입제한 방법은 일정 수입량까지는 현행대로 저율관세(파 3.0%, 생표고 4.3%, 골풀 6.0%)를 유지하고, 초과분은 고율관세(파 256%, 생표고 266%, 골풀 106%)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할당량은 1997~99년의 수입실태를 기초로 결정되었다.

1 일본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을 보면, 파가 98.5%, 생표고 99.9%, 골풀이 99.9%이다.

2 잠정조치는 일반세이프가드의 정식발동 이전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치이며, WTO 규정에 인정되어 있다. 정식발동은 관세인상과 수입수량제한 등이 가능하지만 잠정발동은 관세인상만이 가능하며, 발동기간은 최대 200일까지이다. 관세는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만큼 부과할 수 있다. 또 잠정발동을 한 후 정식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정수한 관세를 반납해야 한다.

표 1 시장접근물량 및 관세상당치

	시장접근물량(저율관세)		초과수입물량(고율관세)	
	할당물량	관세율	관세상당치	증가상당치
과	5,383톤	3.0%	225엔/kg	256%
생표고	8,003톤	4.3%	635엔/kg	266%
골풀	7,949톤	6.0%	306엔/kg	106%

수입제한의 정도를 보면 당초 예상하였던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다. 이것은 중국과 지나친 무역마찰을 피하면서 소비자의 비판을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할당물량의 초과분이 수입되는 시기는 과가 7월, 생표고 10월, 골풀은 8월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당장은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다든가, 일본 국내의 소비자가격이 상승한다든가 하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세이프가드 이외에 ‘감시대상품목’으로 마늘, 가지, 합판, 건표고, 미역, 뱀장어(가공품 포함), 가다랭이를,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제재품 및 집성재) 등을 지정하여 세이프가드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4월 16일 타월에 대해서 정부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하여 생산자측은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발동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불만과 산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정식발동으로 가되, 대상품목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소비자측은 발동이후 과연 일본 산지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시하고 있다. 아무튼 일본 정부는 농가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며, WTO 협정의 규정대로 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세이프가드의 발동배경

일본의 2000년도 채소(신선, 냉동, 건조) 수입은 281만톤으로 과거 최대 수준이다. 이 중에서 신선채소는 92만 6천톤으로 지난 5년간 1.5배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파가 약 4.6배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토마토 25.9배, 피망 4.1배, 양파 1.4배, 가지·마늘 등도 급증하고 있다. 점유율은 중국이 34.6%로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하였고³, 한국은 3위이다.

우리나라의 대일 신선채소 수출은 전년에 비해 8.2% 늘어난 3만 4백톤, 점유율은 3.2%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수출이 급신장하고 있다. 특히 방울토마토가 1996년에 비해 35배 늘어났고, 파프리카 29배, 수박 12배, 가지 7배, 딸기 6배 등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에 비해 대일 수출이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증가율이 급격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신선채소 수입이 증가한 배경에는 ‘개발수입’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수입은 일본의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이 일본 종자에다 생산·출하 지도와 중국의 싼 노임 등이 결합된 소위 개발수입방식이 주류이다. 현지에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저가격·고품질로 수입하는 유통업자와 일본국내 생산자간의 경쟁관계가 선명해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WTO 가맹을 앞두고 농업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이 낮은 곡물에서 채소와 과일, 화훼, 축산 등으로 전환, 이들 품목의 대일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³ 중국의 채소수출은 연간 200만톤 정도이나, 이것은 생산량의 0.5%에 불과하다. WTO 가입을 앞두고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채소수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中國 農業部 農村經濟研究中心 高級研究員 劉志仁)

우리나라는 UR대책에 의하여 시설면적이 확대되고 기술진보가 이루어진 결과, 생산과잉과 가격하락, 그리고 경제위기에 의한 원화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일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중국과 한국의 신선채소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결과, 일본 산지의 가격이 하락, 생산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하고 생산자 또는 산지 보호를 위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이다. 현재의 중국과 한국의 국내 사정을 감안하는 경우 향후 한중일 3국간 신선채소를 둘러싼 무역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세이프가드 발동을 둘러싼 쟁점

세이프가드는 “어떤 상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GATT 또는 WTO의 의무를 정지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 조치”이다. 즉, 수입이 증가하거나 가격급락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1993년 12월의 UR협상에 의한 WTO 농업협정에서 인정된 수입국의 권리이다.

세이프가드에는 2종류가 있다.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세이프가드’(SG)와 UR에서 관세화로 전환된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특별세이프가드’(SSG)가 있다. 일반세이프가드와 특별세이프가드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특별세이프가드는 요건만 갖추면 자동발동 되는데 대하여 일반세이프가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어서 발동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동시에 시간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표 2 특별세이프가드와 일반세이프가드 비교

	특별세이프가드(SSG)	일반세이프가드(SG)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UR 관세화품목이 대상 ○WTO 농업협정 제5조에 근거하여 관세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TT 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한 수입제한 조치
발동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기준수량 초과(5~25%), ○또는 기준가격을 하회한 수입가격 하락(10%초과) ○자동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급증에 의한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실인정 ○조사에 의해 입증
보복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은 대항조치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동시 수출국의 협의 필요 ○협의 실패시 수출국은 보복조치발동 가능

세이프가드가 WTO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수입국의 국내산업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환율변동 등 예상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하여 수입이 급격히 증가,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입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권리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대응조치이기 때문에 기간은 4년간(예외로서 8년)으로 제한되어있다. 특별세이프가드는 1년이다.

우선, 일반세이프가드든 특별세이프가드든 수입제한조치는 적어도 무역자유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다. 발동국은 국내산업이 받고있는 손해의 정도를 고려하면서, 발동기간 내에 효과적인 산업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또 발동에 따르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조치와는 달리 수출국의 하자에 의하여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조치는 전체 수출국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수출국의 보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대가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정을 본래 정신에 비추어 고려해 볼 때 세이프가드의 발동시에는 몇 가지 쟁점이 제기된다. 첫째, 상대국의 보복 조치이다. 일반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수출국의 수출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발동시에는 항상 상대국의 보복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국내 타산업 및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발동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제기된다. 세이프가드는 값싼 상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누구보다도 우선 가격상승을 감수해야 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발동은 보상조치 또는 수출국의 보복 대상이 되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항상 제기된다. 세이프가드는 적어도 당해 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일시적 조치이다. 그래서 발동기간 중에 충분히 구조개혁을 실현할 수 없는 한 발동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이프가드를 통한 지연책보다는 오히려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필요한 사회적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은 쌀을 비롯하여, 채소, 과일, 축산 등 전체 품목에서 시장개방에 의한 가격하락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있다. 채소에 한정하면 중국 생산량의 겨우 0.5% 미만에 의한 타격이다. 앞으로 중국이 수출정책을 강화하면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간 무역마찰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이번의 일본·중국간 세이프가드는 그 전초전에 불과하다.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 세이프가드 발동과 생산자·소비자 반응

과, 생표고는 가정요리에 필수적인 재료이다. 지난 겨울 채소가격이 상승하였을 때는 한 묶음 100엔의 중국산 과가 인기였다. 일본 정부는 4월 23일 수입이 늘어난 이러한 채소 3품목에 대하여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다. 농가 보호가 목적이지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가격에 대하여 품질로 대응하는 일본의 농가, 슈퍼와 소비자 등의 반응을 소개한다.

1. 표고, 전통적인 재배와 직판 도입

길이 90센치의 줄참나무가 하우스 내에 늘어서 있다. “표고가 자라기 쉬운 25도 정도로 10일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군마현(群馬縣) 토미오카시(富岡市)의 토미타(富田久, 48)씨는 조부 대부터 표고전업농가이다. 산간지역인 이 지역에서 약 3만개의 원목을 사용해서 연중 표고를 출하하고 있다.

원목에 균을 심는 재배법은 중국에서 주류인 톱밥 등을 사용한 균상에서 키우는 방법과는 달리 다소 품이 많이 든다. 약 20년 기른 나무를 잘라 균이 번식하기 쉽도록 1년간 재운 후 2년간 재배한다. 대대로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번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서 토미타씨는 “일본 농업을 어떻게 해

서든지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평가한다”고 하지만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는다.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단지 한 마디로 요약한다. “세계와 같은 수준에서 경쟁할 것인가, 일본 전래의 식문화를 지킬 것인가. 농업의 미래상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군마현(群馬縣)은 전국에서 약 9%를 차지하는 표고 주산지이다. 토미타씨는 지역농협(JA甘樂富岡)에서 약 140호의 농가로 구성되는 ‘순무표고작목반’의 회장을 맡고 있다.

중국산 수입공세가 강해진 것은 93년부터이다. “가격으로는 도리가 없다. 안전, 신선도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3년 전부터 아침에 수확한 표고를 생협과 슈퍼에 직판을 늘리고 있다.

토미타씨는 매일 아침 6시전에 기상. 수확한 표고를 JA 집하장으로 옮긴다. 출하량은 주문에 따라 JA가 각 농가에 할당한다. 집하한 채소는 전용트럭으로 오전 10시 개점 전에 도쿄의 슈퍼 등 20개소로 배송한다. 생표고만으로 1일 평균 600킬로 출하한다.

98년 10월에 시작하여 3년째이다. 전체 매상고는 이제 2배로 늘어 2000년도는 7억 5,000만엔에 달했다. 표고전용 출하시설에는 생산자도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판매에 대해 생산자의 의견도 반영된다. “직판은 시장가격에 좌우되지 않고, 슈퍼와 직접 협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 있다.(토미타씨).

봉지에는 생산자명 등이 바코드에 인쇄되어 있어, 이를 보고 연락하는 단골도 생기게 되었다. “좋아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노력한다. 일본의 농업 활성화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군마현청 버섯특산실에 의하면, 도매가격으로 현내산은 중국산의 약 3

배 높은 가격이다. 표고농가의 평균 연간수입은 2000년에는 약 240만엔정도로 최근 3년 동안에 반감하였다. 토미타씨도 가족 4명이 일하여 연수입은 약 600만엔이다. 당장 걱정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쌍둥이 고교 2년생인 아들 학비다. “1엔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소비자가 바라는 것이라면 뭐라도 한다는 의지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2. 사과, 택배와 무농약연구회 개최

치바현(千葉縣) 마츠도시(松戸市) 야기리(矢切) 지역은 일본 굴지의 과산지이다. 이 지역은 사이타마현(埼玉縣)의 후카야(深谷) 사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 ‘야기리 사과’ 산지이다. 사과 고유의 단맛이 풍부하여 명절에 선물로도 수요가 많다.

“농협을 통해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가을과 겨울 출하가 중심인 우리들이 그렇게 우대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의 소동으로 끝난 느낌이다.” 사과 농가 히라카와(平川實) 씨는 과선별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불평하였다. 정부 방침으로 셰이프가드는 200일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출하 성수기인 12월에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야기리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시작된 것은 약 130년전이다. 히라카와씨의 증조부 등 몇 명이 도쿄에서 종자를 가져와 품종 개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현재 시내 800호 이상의 농가 대부분이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우리들의 주력인 대형 사과가 중국에서 대량 들어와 국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히라카와씨는 말한다. 옆에 있는 출하전표를 보면 3년전 이 시기에 L사이즈 1상자를 2,400엔에 출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달 9일의 실적은 1상자에 800엔. 채산라인은 1,500엔이다. 농협 발표에 의하면 작년 농협의 사과 판매실적은 1억 7,650만엔. 98년과 비교하면 약 1억 4,600만엔이 감

소하였다.

3년전 히라카와씨가 중국산 과를 봤을 때에는 뿌리인 연백 부위도 짧고 단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품질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판매방법과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

마츠도시(松戸市)의 경우 바로 옆에 대소비지가 있다. 농협에서도 고품질 과의 개인택배를 하기도 하고, 소비자를 포함한 ‘무농약연구회’를 열기도 하여 소비자를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 농협의 한 직원은 “정부에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채소는 스스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한다.

과 가격이 좋았을 때 히라카와씨는 회사에 다니던 장남(23)에게 농업을 권유하여 과 농사를 물려주었다. 그것이 잘한 것인지 어떤지 지금은 대답이 나오질 않는다고 한다.

3. 유통현장, 반발 계속되나 대응은 냉담

“매장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다이에이 홍보부 직원은 말한다. 지역 채소를 갖추어 놓는 등 최근 수년간 신선도와 안전에 호소하여 국산품에 힘을 쏟고 있다.

수입품은 단경기·긴급시 대책이다. 연중 취급하는 중국산 표고도 ‘가격이 선택의 수단 중 한가지’이다. 채소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입품의 매출액은 3%이다. 관세인상이 있었다고 해도 중간비용의 삭감으로 흡수할 방침이다. 구입하기 쉬운 채소의 가격은 1박스에 100엔대. 지금까지도 가격이 오르면 수량을 조절하여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도쿄 오오타시장(大田市場)의 한 중매업자(51)는 “정말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냐”며 질린 얼굴이다. 신선품이라고 해도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품질, 수량, 가격의 연중 안정이다. “일본의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에 부적합한 것은 수입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지만”이라고 불평한다.

지난 겨울은 기상불량으로 밀감 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소비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파나 표고를 먹고 싶다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있을까. 이 점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일본 식품서비스협회 홍보담당자는 “외식산업은 국내 생산자를 소중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신중한 자세이다. 이번 발동은 품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혼란은 없겠지만 “수요가 많은 토마토, 양파 등에 영향이 미치면 비용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 도심에서 체인식 우동전문점을 하는 한 간부는 정부에 대해 항의데모를 하였다. 국내 산지와 재배계약을 맺었지만 1년이 채 안되어 일방적으로 중단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서서히 중국산으로 바꾸어 지금은 연간 300톤이 소비되는 파는 전량 중국산이다. “질은 만족하고 있다. 발동 후도 그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3년 전부터 파의 개발수입을 시작한 도쿄의 식품도매회사 담당자는 “신선도가 떨어지면 다음 방법을 모두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 냉동 가공하여 수입한다는 의도이다.

“교자 등 냉동식품에 중국산 파를 사용하는 경우 재냉동의 품질저하를 우려하여 신선품을 국내에서 가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우선으로 한 제조업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업자도 “현지 공장건설 쪽으로 기

울고 있다. 국제기준을 만족하는 냉동공장, 저온수송설비가 중국에 차차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4. 소비자, 불경기에 국산 응원

소비자는 세이프가드를 어떻게 보는가. 도쿄 에도가와구(江戸川区)의 대형슈퍼 앞에서 주부 30인에게 물어 보았다. 이번 발동에 대해 찬성 12명, 반대 10명, 어느 쪽도 아닌 것이 8명이었다. 반대 이유는 “비싸지기 때문에”, 찬성은 “불경기이기 때문에 국산을 응원한다”가 많았다.

중국산 대파나 표고를 산 적이 있는 주부는 22명. 이유로는 ‘저가격’ 을 첫 번째 이유로 든 사람이 19명이었다. “국산이 너무 비싼 시기만”, “국산이 없었기 때문에” 등으로 국산품의 대체품으로 사는 사람이 많았다.

맛과 품질에 대한 감상은 생표고는 “모양이 좋고 두껍다”, “푹신푹신한 식감이 최고다”, “맛 차이는 없다”. 대파는 “국산과 다르지 않다” 등이었다. “산적이 없다”고 대답한 8명의 이유는 ‘가격보다 안전중시’, ‘국산 응원’ 등이었다. 수입 신선채소의 증가에 대해서는 ‘안전하면’이라는 조건도 포함해 찬성이 16명, 반대가 13명, 기타가 1명. ‘국산도 조금 더 싸게’라는 요구도 있었다.

(資料 : 「朝日新聞」、2001年 4月 16日号에서)

일본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채소산지 대응

1. 세이프가드 발동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로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생기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WTO 협정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이다. 긴급히 발동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선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 인상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이 발동한 잠정조치에서는 파 5,383톤, 표고 8,003톤, 골풀 7,949톤까지는 종전대로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수준을 상회하면 파에 256%, 표고에 266%, 골풀에 106%의 추가관세가 부과되어 국내 생산품과 거의 같은 가격이 된다.

농림성은 뱀장어, 미역, 목재 등에 대해서도 발동을 위해 조사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경제산업성, 재무성에 요구하고 있다. 또 토마토, 양파, 피망, 마늘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수입상황이나 시장동향을 상시 감시하고 있다.

2. 전국 1,300개 지자체가 세이프가드 발동요청

농림성에 의하면, 1985년에 95%이었던 채소 자급률이 99년에 83%로 떨어졌다. 특히 1996년 이후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유통업체 및 외

식업체가 노동비용이 낮은 중국 등에서 재배기술이나 품질관리를 지도해서 수입하는 ‘개발수입’ 정착이 주요 원인이다.

중국 국내에서는 고속도로나 항만시설 등의 인프라정비에 이어 냉동·냉장으로 채소를 수송하는 체제도 정비되어 왔다. 현재 “중국 산지에서 수확하여 일본 소매점에 나오기까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품질이나 신선도도 국산 채소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수입채소를 공급할 수 있다”며 어느 대형슈퍼는 설명한다.

수입농산물은 가격도 싸다. 최근 동경도내에 있는 대형슈퍼의 가격은 일본산 사과(3개 한묶음)가 178엔, 중국산이 100엔. 표고(100그램)은 일본산 158엔, 중국산이 100엔 정도이다. 손님을 끌기 위해 진열해 놓은 상품이 수입품인 경우도 많으며, 판매가격이 국산보다 싸며, 이윤은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높다고 한다.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인 사과 등 3품목이다. 이 외에도 피망과 같이 수입농산물에 의하여 가격하락 압박을 받는 농산물이 많으며, 이러한 품목도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작년 수입량을 보면 토마토가 한국을 중심으로 50%가까이 급증하였고, 양파도 17% 증가했다. 손상 받기 쉬워 수입이 어렵다고 하던 딸기조차 10%나 증가하였다.

낮은 가격의 수입농산물 폭주로 전국에서 1,300개 이상의 지자체가 2000년 이후 농림수산물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홋카이도(北海道)의 채소산지에서는 금년도 1개 농협당 평균 25호의 이농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도청이나 도의회는 계속 세이프가드 정식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토치기현(栃木縣)에서는 3월 중순, 현농협중앙회 등이 긴급집회를 열었다. 토마토, 피망, 양파 등에 대해 조속히 정부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 조사착수를 현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각 산지에서는 정부에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를 염두에 두어 수입품에 대항할 수 있는 체질로 노력하라는 양면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3. 소비자 입장을 무시

세이프가드의 발동 결정으로 신선식품을 다루는 슈퍼나 수입채소의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체로 과문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신선채소를 수입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식품슈퍼 라루즈의 요코야마(横山清) 사장은 “관세율이 인상되면 기업의 노력으로 비용을 흡수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파 등은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은 적다고 보지만, “수요기인 11월 이후도 제한이 계속되면 소비자의 반발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원가에서 차지하는 파, 표고의 비율은 낮아서 경영노력으로 흡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재료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하반기 메뉴에 식재 변경도 있을 수 있다”(대형 패밀리레스토랑)고 한다.

농림성은 “세이프가드 발동기간 내에 국내 산지에서 경쟁력 강화책을 강구한다”(국제조정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채소는 국산품과 수입품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시점을 망각한 것이며,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北野 관서슈퍼마켓 사장)라며, 발동에 대한 반발도 강하다.

세이프가드에 의해 채소 수입량이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신선채소에 수입규제가 계속되면, 냉동채소나 가공채소의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수입상사). 국내외 청과물 유통에 정통한 고야마(小山周三) 西武文理大學 교수는 “일본의 소비자는 싼 채소를 요구하는 한편, 기후나 풍토에 밀착된 제철 채소를 원하는 수요가 있다. 이번과 같이 가격에만 착안한 정부 조치는 食과 農業의 관계를 왜곡시킬 지도 모른다”고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농업의 현실 앞에서 “수입농산물에 제한을 가해 장래에 국내에서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대형 청과물상사)라는 지적도 있다.

4. 주요 채소산지의 대응

4.1. 치바현의 파 산지

파 생산액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치바현(千葉縣). 구십구리 해변에 가까운 산지, 히카리정(光町)의 밭에서 야마자키(山崎義則)씨가 수확에 땀을 흘리고 있다.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차례로 파를 수확한다. 옆에는 출하하여도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잔 파가 널려있다.

히카리정이 중심이 된 ‘조사원예부’에서는 260호의 농가가 파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의 수입급증으로 이 지역산 파 가격은 4, 5할 하락하여 轉業을 생각하는 농가도 생기고 있다. “우선은 수입제한 밖에 방법이 없겠지요”, 야마자키씨는 불평을 한다.

이 지역 파농가의 지도자격인 오오키(大木久幸)씨도 수입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정도로 값이 떨어지면 생산의욕을 잃어버린다. 轉作은 어렵다. 유기재배 파로도 비용을 흡수하기도 어렵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생산해 낼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있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아 애만

태우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세이프가드의 추가관세는 파가 256%. “국내 농가는 충분히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수준”(치바 미도리농협)이라며, 일단은 평가하지만, “발동기간인 200일이 지나면 수입이 다시 급증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 농협은 집하장에 급속냉장설비를 도입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출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저농약 및 유기재배에 기존보다 더 노력하는 등 파 산지로서의 생존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후계자가 의욕을 가지고 농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4.2. 미야자키현의 피망 산지

“이대로 수입이 확대한다면 피망산지의 마을은 붕괴된다.” 일본 제일의 피망산지, 미야자키현(宮崎縣) 사이토시(西都市)에서 30년 이상 생산을 계속한 사카이(酒井忠臣)씨는 위기감을 나타낸다. “출하는 성수기를 맞이했지만 3년전과 비교하면 수입은 3할 정도 줄었다. 장래 피망생산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관세인상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호소한다.

국내산을 위협하는 것은 네덜란드나 한국에서 수입되는 파프리카와 칼라피망. 국산 그린피망의 유사종이지만 식재가 두껍고 식감이 부드럽고 단 맛이 있고, 적·황·주황 등 색채도 풍부하다. 새로운 식재로서 식탁에 올라 작년 수입은 약 1만 6,000톤으로 5년전의 5배에 달한다.

수입품은 1아르당 수량이 40톤으로 국산의 4배이며 생산비용도 낮다. 싼 수입품에 밀린 피망 1킬로의 단가는 3년전의 평균 500엔에서 260엔으로 떨어져 채산라인인 400엔을 대폭 밑돌고 있다. 이 영향으로 사이토시 피망 농가는 550호에서 510호로 줄었고, 부추와 오이로 전업하고 있다.

사이토농협(JA西都)은 파프리카로의 전작도 검토하였지만 역시 어렵다. “네덜란드의 하우스는 생산에 적합한 높이 3미터이상이나 일본의 하우스는 2미터이하로 낮고, 태풍 등에 대해 내구성을 생각하면 높게 할 수 없다”(日高浩二 판매과장)고 한다.

동 농협은 새로운 용도로서 피망을 원료로 하는 소주를 개발하여 5월에 판매할 계획이다. 새로운 조리법을 소개하는 시식회도 슈퍼마켓 등에서 열리고 있지만 “자조노력에는 한계가 있다”(緒方建好 원예부장)며, 계속해서 가격유지와 수입제한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5. 산지의 대응책

“가격 면에서는 수입품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 신선도, 맛에 호소한다”(岩手縣 경제련). 수입농작물의 급증에 대해 각 산지는 독자적인 대책을 시작하고 있다.

5.1. 신제품 도입

표고생산 전국 1위인 군마현(群馬県)은 신제품의 보급을 강화하고 있다. 유망품종은 송이과의 일종인 ‘하타케시메지’. 맛이 좋고 영양가도 뛰어나다고 한다. 금년부터 재배 기구의 개발과 시험재배를 본격화하여 3년후까지 연간 300톤 생산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5.2. 브랜드화 추진

군마현은 금년 중에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일정이하인 농산물을 「특별재배농산물」로 인정하는 농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산 채소의 품질과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호소하여 저가격경쟁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備後表’로 유명한 히로시마현(広島県)의 곱풀도매·제조업자단체인 히

로시마현 곶꿀제품상업협동조합은 “세이프가드는 곶꿀의 품질로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산지의 브랜드화, 가격개선을 할 수 있는 찬스”(齋藤忠行 이사장)라고 평가한다. 증명서가 붙은 현산 곶꿀판매에 노력하여 곶꿀 생산농가에 식부면적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5.3. 판촉활동 강화

과의 산지 사이타마현(埼玉縣) 후카야시(深谷市)의 후카야농협(JA深谷)은 수입품에 대항하기 위해 판촉활동에 나섰다. 현재 오후 3시의 농협 집하시간을 앞당겨 수확한 당일에 시장에 파를 출하하는 시스템을 도입, 신선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3개 한 묶음으로 출하하는 방법도 개선하여 소비자가 사기 쉽도록 1개씩 날개판매도 시작하고 있다.

5.4. 비용 절감

서일본(西日本) 제일의 파산지인 톳토리현(鳥取縣) 톳토리서부농협(JA鳥取西部)은 세이프가드 해제 후를 대비하여, 품종과 재배방법을 개선하는 검토회를 지구마다 개최하고 있다. 우량농가의 재배법을 입문서로 정리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톳토리현 청에서도 농협이 슈퍼에 직접 판매하는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資料 : 「日本經濟新聞」, 2001年 4月 16日字에서)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3)

1. 채소의 가격과 생산동향

1.1. 전체

최근 10월부터 11월에 걸친 일조부족으로 인해서 12월 이후의 채소가격은 평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더욱이 1월 이후의 한파, 적설 등의 영향에 의해 입하량이 감소하여 1월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였지만, 2월 중순에는 가격이 안정을 되찾아 평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으며, 3월에는 대략 평년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1.2. 엽경채소

배추, 양배추, 양상추는 일조부족으로 초기생육이 저하되어 크기가 적은 경향이 있으며, 시금치는 주산지인 北關東이 눈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평년을 상당히 상회하였지만 2월 중순에는 안정을 되찾아 평년을 약간 상회하거나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파는 수입 증가의 영향 등으로 인해 평년을 대폭 하회하는 가격으로 추이하고 있다.

1.3. 과채류

서부 온난지가 주산지인 피망은 일조부족의 영향으로 수세가 약하고 착과불량으로 가격 수준은 평년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가지, 토마토는 평년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채소 생산동향

	1996	1997	1998	1999	2000
도매가격(엔/kg)	155	154	195	163	145
생산액(억엔)	22,986	23,090	25,953	22,110	-
식부면적(천ha)	524	514	506	502	-
수확량(만톤)	1,462	1,431	1,364	1,387	-

자료 : 동경청과물정보센터 「청과물유통연보」

농림수산성 「생산농업소득통계」, 「채소생산출하통계」

주 : (1)도매가격은 동경중앙도매시장의 지정채소 14품목 평균가격이다.

(2)식부면적 및 수확량은 식료수급표 기준 50품목이다.

표 2 지정채소 도매가격 동향(2001년 3월 중순기준)

	가격(엔/kg)	전년대비(%)	평년대비(%)
무	103	95	105
당근	100	92	87
배추	149	298	169
양배추	142	122	134
시금치	340	107	94
파	166	71	57
양상추	217	73	100
오이	283	105	85
가지	415	104	96
토마토	403	136	107
피망	599	152	129
감자	108	60	82
토란	213	91	96
양파	102	107	109
지정채소계	185	105	103

자료 : 東京青果物情報センター 「東京都中央卸売市場における産地別の入荷数量及び価格」

2.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1년 2월 19일에 공표된 재무부 「무역통계」에 의하면, 첫째 2000년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926천톤으로 과거 5년 동안 약 1.5배 증가하였다.

둘째 이 중에서도 특히 파 등은 약 4.6배, 토마토는 약 25.9배, 피망 등은 약 4.1배, 양파는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그 외에 가지, 마늘 등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월 이후 신선채소 수입량은 199천톤에 달하고 있다.

표 3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량

단위 : 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630	573	740	885	926
양파	184	175	205	223	262
호박	144	136	129	154	133
우엉	-	-	-	72	82
브로콜리	74	72	75	91	79
생강	31	33	30	34	48
당근·무청	30	13	34	50	44
파 등	9	9	18	30	42
메론	27	24	29	39	34
마늘	24	25	27	26	29
아스파라거스	22	21	20	24	25
피망 등	4	6	9	11	16
토마토	1	1	4	9	13
가지	0	0	1	2	2

자료 : 재무부 「무역통계」

주 :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로 분류되었다.

표 4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량

단위 : 천톤

	1월	2월	1~2월
신선채소계	82	117	199
양파	25	30	55
호박	11	24	35
양배추 등	6	16	22
브로콜리	5	8	13
파 등	4	6	10
우엉	5	4	9
당근·무청	3	5	8
생강	4	3	7
메론	2	3	5
마늘	2	2	4
아스파라거스	2	2	4
토마토	2	1	3
피망 등	1	1	2
가지	0	0	0

자료 : 재무부 「무역통계」

3. 식물검역 상황

주요 신선채소의 검역실적 속보는 다음과 같다.

표 5 식물 검역 상황

단위: 톤

		2001.2.19~25	2001.2.26~3.4	2001.3.5~11	2001.3.12~18
파	검사수량	1,569	1,155	622	540
	합격수량	616	712	486	334
	불합격수량	953	443	136	206
토마토	검사수량	32	30	16	33
	합격수량	31	30	16	33
	불합격수량	1	0	0	0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317	195	111	117
	합격수량	317	195	111	117
	불합격수량	0	0	0	0
피망	검사수량	359	320	438	355
	합격수량	341	297	386	308
	불합격수량	18	23	52	47

자료 :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4. 채소 소비량

채소의 연간 공급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으로 210.2kg/년이다. 각 국의 식문화에 따라 채소소비는 차이가 있다. 이탈리아는 토마토,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감자가 가장 많은 등 품목별로 공급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각국의 연간 채소 소비량

단위 : kg/년

국 명	공급량	자급율(%)	토마토	양파	감자
한국	210.2	98.0	5.3	15.1	11.1
뉴질랜드	179.0	142.4	24.4	0.0	75.9
이탈리아	176.2	120.1	60.7	6.1	39.0
중국	161.3	101.2	11.0	6.7	18.8
미국	124.2	99.2	40.6	10.3	62.3
프랑스	122.8	90.4	23.7	4.9	67.6
캐나다	122.1	61.0	32.1	7.6	82.1
일본	113.2	85.1	8.1	1.0	24.7

자료 : FAO 「FAOSTAT」

주 : 1994~98년 평균

(자료: <http://www.maff.go.jp/work/010131seisan/hyousi.htm>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2000년 농촌경제 현황

2000년부터 중국정부는 농업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시작하여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2000년 심각한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5년이후 5년여 동안 지속된 풍작으로 재고식량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량의 수급상황, 가격 및 식량안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재고 누적현상을 다소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향진기업은 점진적으로 호전되었으며, 이농노동력이 다소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입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고, 농촌개혁 및 농촌의 시범적인 조세제도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 식량과 당료를 제외한 기타 농산물은 증산

2000년 중국의 식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산되었다. 2000년 한해동안 식량생산량은 4.63억만톤으로 약4,500만톤이 감산되어 9%가 감산되었는데, 1985년 이후 감산 폭이 가장 큰 한해였다. 식량감산의 주요 특징은, 첫째 하곡과 추곡이 모두 감산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전국에서 동시에 감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식량의 주 생산지인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등 지역의 감산 폭이 아주 컸으며, 옥수수의 주 생산지인 동북3성의 옥수수 감산 폭은 30~40%에 달하였다.

식량의 파종면적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시작된 농촌 구조조정에 따라 식량의 파종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산출이 높은 식량작물의 파종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과종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감소한 식량생산의 감소량은 약 3,000만톤으로 추정되었다. 단위당 생산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1996년 이래 식량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의 식량재배에 대한 적극성 및 투자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단위당 산출량수준을 하락시켰다. 이밖에 2000년 한해동안 중국전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피해규모는 신중국성립 이래로 가장 심각하였다. 특히 중국서북지역의 동부, 화베이(華北⁴) 및 황하이(黃淮⁵)지역은 예년에 비하여 약 50%까지 감소하였다. 9월까지 전국적으로 누적된 농작물의 가뭄재해발생면적은 5.7억무(畝⁶)에 달하였으며, 그중 재해면적은 4.2억무,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전무한 면적은 1.2억무에 달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황충(蝗蟲)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는데, 6월 중순까지 황충 발생면적은 5,500만무에 달하였다. 2000년 한해 동안 중국전역에서 가뭄과 황충으로 인한 하곡생산의 감소폭은 약40%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23개 성(省)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농작물 재해발생면적은 1.2억무에 달하였으며, 그중 재해면적은 7,700만무에 달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홍수로 인한 하곡식량의 단위당생산은 1999년에 비하여 11kg이 하락되었으며, 옥수수의 단위당 생산량은 10%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 면화는 시장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과종면적이 반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단위당 생산량이 1999년보다 높아 생산량은 400만톤 이상으로 예측되었다. 당료는 연초 남방지역의 저온현상으로 인한 동해(凍害)의 영향을 받아서 생산량이 7,640만톤으로 약 700만톤이 감소되었다. 유지류(油料)의 생산량은 약 2,900만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
- 4) 중국의 북부인 하북(河北), 산서(山西), 북경시 및 천진시 일대를 이야기 함.
 - 5) 중국의 하남성(河南省), 안휘성(安徽省), 강소성(江蘇省), 산둥성(山東省)일부의 지역을 말한 것으로 대략 황하강 이남의 지역과 장강이북의 지역을 이야기 함.
 - 6) 약 200평

13.4%가 증가하였는데, 그중 채유종실의 생산량은 1,100여만톤에 달하여 1999년에 비하여 약 120만톤이 증산되었다. 채소의 경작면적은 1999년에 비하여 2,700만무(畝)가 증가하여 2.2억무에 달하였는데, 예년의 단위당생산량에 따라 추산해보면, 약 4,000만톤 이상이 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양식업의 발전추세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전국의 산돼지 생산추세가 호전되었으며, 목축업생산중 소, 양 및 비계가 없는 살코기형 돼지의 생산비율이 높아졌다. 전국의 육류 총생산량은 약 6,270만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약 5.4%가 증가되었다. 조류의 알과 우유류 생산의 증가폭이 비교적 컸는데, 각각 4%와 9%가 증가되었다. 어업생산 중 양식에 의한 생산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95년 54%에서 2000년에는 60%까지 증가하였다. 명산, 특산, 우량품종 및 새로운 수산물의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산물 생산량은 4,200만톤에 달하여 역사상 최고수준에 달하였으며, 1999년에 비하여 2.5%가 증가하였다.

2. 향진기업은 호전, 투자부족과 기업부담 가중은 여전

2000년 전국적으로 향진기업의 증가된 가치는 27,300억위엔에 달하여, 1999년에 비하여 10%증가되었다. 이윤총액은 6,450억위엔으로 전년에 비하여 9%가 상승하였으며,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1,950억위엔으로 8.6%가 증가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향진기업의 생산품 판매율은 94.8%로 전년에 비하여 0.6%가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는 12,900만명에 달하여 16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전국 향진기업의 수출액은 8,783억위엔으로 전년에 비하여 13.4%가 증가하였으며, 총 수출액의 40%를 점하였다. 또한 향진기업의 수출액은 향진기업 판매액의 10%를 점하였다.

2000년 향진기업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일부 어

려운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 첫 번째는 투자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투자부족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금융기관의 향진기업에 대한 대출감소이다. 또 다른 하나는 향진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향진기업이 주식시장의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약 1000여개 정도 있으나,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이 허가된 기업은 40여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향진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향진기업에 대해 세금, 벌금, 기부금할당 등 각종명목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진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비용은 기업이윤의 20%에 달하고 있으며, 판매수입의 3~5%를 점하고 있다.

3. 농촌 이농노동력은 대폭 증가

2000년 전국의 이농노동력(과거에 이농하여 되돌아오지 않은 노동력을 포함)은 농촌 총 노동력의 20.9%로, 1999년에 비하여 4.9%가 증가하였다. 이농노동력 가운데 69%가 남성이며, 74%는 18~40세의 청·장년층의 노동력이다. 농촌의 이농노동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주요 지역은 동부와 중부지역이며, 지역 간의 유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국의 이농노동력 가운데 성을 벗어난 유동인구는 40.5%, 현지역을 벗어난 유동인구는 19.5%, 현내에서 취업을 한 인구는 40%이며, 성을 벗어난 유동노동력은 주로 동남연안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000년 전국 농촌이농노동력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원인은 국내외의 경제회복 및 농산물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농산물가격은 낮은 상태에 안정유지

2000년 식량생산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식량의 공급은 여전히 수요보다 많았다. 2000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4.9억톤으

로, 수출입을 상쇄한 이후 당해연도 공급과 수요의 갭은 2750만톤에 달하였지만, 재고식량을 동원하여 부족량을 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재고식량의 과다 문제를 다소 해결하였으며, 국유식량기업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2000년의 식량감산은 중국의 식량안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0년 중국식량시장의 현저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식량가격이 4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2000년 하반기부터 식량가격이 다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999년의 수준보다는 낮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밀의 가격은 약 10%, 옥수수는 약 5%, 쌀은 1~2%가 상승하였다. 콩의 가격은 2000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약 30%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입 콩이 들어오면서 가격은 신속하게 하락하였으며 심지어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 가격하락을 가속화시켰다.

2000년초 중국의 면화부족량은 75만톤에 달하여 가격이 급상승하였으며, 4월에는 국제시장가격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생산된 면화가 시장에 출하되면서 면화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중국의 면화생산량은 기본적으로 1999년의 수준과 같았으며, 이에 추가하여 정부가 보유한 면화의 재고량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고급품의 면화가격만 다소 상승하였을 뿐, 면화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상황은 대체로 안정된 가운데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2000년 축산물가격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그중 산돼지 가격은 1999년에 비하여 다소 상승하였으며, 소·양고기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였다. 달걀가격은 2000년 상반기에 최근 몇 년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까지 하락하다가, 7~8월에 전국적으로 평균 13.2%가 상승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소 하락한 가운데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최근 수

산물에 대한 구조조정이후 수산물의 시장공급량이 점진적으로 합리적인 추세로 전환되면서, 과거 수산물이 시장에 집중적으로 출하되어 경쟁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현상을 면하게 되었다. 수산물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다소 상승하였는데, 1997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5. 농산물 수출입은 대폭 증가

2000년 중국의 농산물 무역총액은 268.2억달러에 달하였는데, 1999년에 비하여 23.4%가 증가하였다. 그중 농산물 수출액은 156.2억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15.4%가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수입액은 112억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36.5%가 증가하였다. 농산물 무역은 44.2억달러의 흑자가 발생하였는데, 전년에 비하여 9.1억달러가 감소하였다.

농산물 수출입구조면을 보면, 식량의 수출입은 모두 배로 증가하였는데, 수출이 수입보다 다소 많았다. 식물성 식용유의 수출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하락하였다. 채유종실의 수입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면화의 수출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하락하였다. 설탕은 순수입추세가 지속되었다. 채소와 과일의 수출추세는 여전히 양호하였다. 축산물은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수산물은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났다.

6. 농업생산자재 공급은 충분, 농업투자는 저조

2000년 농민의 생산성투입이 감소하였다. 먼저 1999년 겨울에서 2000년 봄까지 농지수리건설의 규모와 역량은 전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였다. 연초에 농민의 누적된 작업량은 약 80억일에 달하였는데, 1999년 동기간에 비하여 20억일이 감소하였다. 농업생산자재는 농업용 비닐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 이외에 기타 생산자재의 판매량은 1999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2000년 화학비료의 소비량은 3800만톤으로 1999년에 비하여 약 200만톤이 감소하여 5.1%가 하락하였다. 농기계시장이 침체되었다.

농업투자가 하락한 주요원인은, 첫째 근래에 농산물가격이 낮아 농민의 소득증가속도가 하락함으로서 투자의 적극성과 투자의 능력 모두 하락하였다. 둘째 2000년도의 가뭄으로 인하여 가뭄극복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여, 농민이 기타생산요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질소비료와 인산비료의 소비량에도 영향을 미쳐 화학비료 소비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셋째 국제유가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중유가격이 1년 동안 8번이나 상승하였으며, 이는 농기계 사용비용의 상승을 가져왔다.

7. 농가소득은 다소 증가, 증가폭은 하락

2000년 농가 1인당 순수입은 1999년에 비하여 2%가 증가하였다. 농가 순수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첫째 향진기업이 호전되면서, 농민이 지역기업에 종사하여 벌어들인 수입이 증가하였다. 농민이 향진기업으로부터 획득한 임금수입이 농민 1인당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이 34%로 상승하였다. 둘째, 목축업 생산추세가 호전되었다. 일부지역에서는 목축업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농업수입에서 점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였다. 셋째,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이는 이농농민들에 대한 직업창출의 기회를 증가시켰다. 넷째, 4분기의 식량가격이 회복되었고, 구매속도가 빨라졌는데, 이는 식량재배농민의 수입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2000년 면화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회복되어 면화재배농가의 수입증가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2000년 농가 1인당 평균 순수입의 증가폭은 1997년이래 4년동안 지속되어온 하락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부 식량주산지의 농민수입은 그 절대액이 감소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 농민수입의 낮은 증가속도

와 도시주민소득의 빠른 증가속도가 서로 명확하게 대조되는 추세가 나타남으로서 도시와 시골간의 수입격차를 진일보하게 확대시켰다. 농민이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은, 첫째 농산물 공급의 상황이 장기간 부족하던 상황에서 과잉상태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가격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둘째, 식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다. 셋째, 농산물시장체계와 농업정보체계가 불완전하여 농산물의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넷째, 가뭄과 유가상승으로 농업생산비용이 증가되었다.

자료 : 「中國農村經濟」 2001年 2月號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2001년 농촌경제 전망

1.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안정 유지

2001년 전국 식량 파종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각성(자치구, 직할시)이 초보적으로 안배한 식량파종면적은 1999년에 대폭적으로 하락하였던 것에 계속하여 다시 약 4000만무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우량 조도(早稻), 밀, 유채 재배면적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1년 월동한 농작물의 모종상황이 비교적 좋지 않고, 이밖에 기상부문의 예측에 따르면 2001년은 아마도 가뭄 현상이 보편화되어 농작물생산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 식량생산은 2000년 상황과 기본적으로 비슷할 것이다.

1999년부터 시작하여 방직업의 생산추세가 호전되고 있으며, 이는 면화에 대한 수요량을 증가시켰다. 2000년 면화 수요량은 430만~450만톤에 달하였다. 그중 방직에 사용된 면화는 400만톤 이상이였다. 면화 공급상황에 따르면 2001년 면화생산은 안정적인 상황에서 다소 상승할 것이며, 파종면적은 5800만~6000만무에 달하여 생산량은 400만톤 이상이 될 것이다. 유지류 생산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생산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생산량은 2000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이다. 사탕류 파종면적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생산량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육류의 총생산량은 6400만톤에 달하여 3%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향진기업은 성장세 유지

2001년 향진기업은 2000년의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약 200만명의 노동력을 창출할 것이며, 농촌의 도시화에 따라 향진기업에서 흡수한 노동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2001년 중국의 대외무역상황은 2000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향진기업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농산물가격은 약간 상승

식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쌀은 2000년 감산 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가격은 기본적으로 안정될 것이나, 양질미와 보통미간의 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밀은 2000년도 감산 폭이 비교적 컸으며, 품질이 예년에 비하여 떨어지고, 새로운 품질표준을 실시한 이후 표준규격에 도달하기 어려운 밀이 많았다. 수매가격이 하락하여 공급 가능한 밀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2001년 밀 파종면적은 더욱 감소, 실령 총생산량이 증가한다해도 1999년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밀 부족분은 재고 방출과 수입증가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0년 세계적으로 밀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 때, 2001년 중국의 밀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2000년 옥수수의 생산량은 대폭 감소되었는데 감소폭이 19.5%에 달하였다. 그러나 소비량과 수출량은 오히려 증가하여 2000년 부족한 옥수수 공급량은 2200만톤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2001년 옥수수 가격은 상승할 것

이다. 콩은 2000년에 약 10%정도 증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중국의 유지 가공능력이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근래에 들어와 콩 수입량이 많아지면서 중국콩 가격은 상당한 정도에 있어서 국제가격의 추세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2001년 하반기 중국 콩시장은 공급이 다소 부족할 것이며, 시장가격은 소폭의 과동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작물은 구조조정 과정 중에 비교적 많은 양이 증가하여 가격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육류 가격은 옥수수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받아서 소폭 상승할 것이다.

4. 농업생산자재의 공급은 충분

2001년초 농자재 공급상황이 양호하여 기본적으로 봄갈이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가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농자제품질의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농자재 품질이 향상되었다. 우량종자의 공급 또한 충분하여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하였다. 2001년 화학비료 수요량은 3800만톤, 공급량은 3850만톤으로 비료시장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다.

5. 농가소득 증가는 낙관적

이상의 제 요소를 종합하고, 특히 농산물가격 변화 및 향진기업 발전추세 등을 고려할 때, 2001년 농가소득 증가폭은 2000년에 비하여 낙관적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경제추세가 근본적으로 호전되지 않았고, 농업과 농촌의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소득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자료 : 「中國農村經濟」 2001年 2月號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 농가소득 증가율 4년 연속 하락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농민 일인당수입 증가폭이 4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농가조사에 의하면, 2000년 농민일인당 순소득은 2,253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43위안 증가한 1.9% 성장에 불과하였다. 물가지수를 제외한 실질증가는 2.1%로 증가폭이 전년도에 비해 1.7% 떨어졌다. 그 가운데 현금소득이 1,640위안으로 4%가 늘어났고, 실물소득이 613위안으로 9% 떨어졌다. 농민소득 성장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농가소득 증가의 주요 요인은 임금소득

임금 성격의 소득은 네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째, 비기업조직에서 얻은 소득으로, 예를 들면 향촌간부나 교사 등의 임금이다. 둘째, 현지 소재의 기업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고, 셋째는 현지 향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고용되거나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며, 넷째는 기타 보수소득이다. 총 2,253위안의 일인당 순소득 가운데, 임금에 의한 소득은 701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71위안, 11.2% 늘어났다. 이것은 전체 순소득 증가량의 165%에 해당하고 일인당 순소득의 31.11%에 해당한다. 2000년도 농민 한 사람이 비기업조직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140위안으로 전년도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지 향(鄉) 소재 기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208위안으로 15.6%가 늘어났으며, 외부로 나가 고용되거나 영업을 통해 번 소득은 240위안으로 18.2% 늘어났다. 외부로 나가서 벌어들인 소득과 현지 기업에서 얻은 소득이 전체 임금성격의 소득의 97.8%이다.

2. 경종소득은 지속적 하락

2000년도 농민 한 사람이 농업에서 얻은 소득은 1,091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48위안(4.3%) 감소하였다. 농업으로 얻은 소득은 이미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8년과 1999년도에 농업에서 얻은 소득은 각각 전년도에 비해 28위안과 53위안이 감소되어 각각 4.5%, 2.3% 감소된 바 있다. 2000년도 농민 한 사람이 경종업으로 얻은 소득은 784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98위안(11.2%)이 감소되었다. 1998년, 1999년 경종업으로부터 얻은 소득 역시 그 전년도에 비해 16위안, 45위안이 감소된 바 있다. 식량의 감산과 가격하락이 경종업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00년도에 농민이 출하한 평균 식량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15%가 하락하였다.

3. 식량 주산지의 농가소득은 저위

동북3성(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허베이성(河北省), 허난성(河南省) 등 11개 식량 주산지의 농민 순소득은 2,150위안 1.2% 성장에 그쳐, 전국 평균에 비해 1% 낮았다.

4. 저소득농가와 농업생산의 소득 하락

통계국 농촌조사대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를 5등급(각 20%)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도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인 그룹의 농가는 순소득이 802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6% 떨어졌다. 반면, 소득이 높은 그룹의 농가일수록 소득증가의 폭은 커서 가장 높은 소득을 보인 그

룹의 농가들의 소득 증가는 6%이었다. 그 외에 전체 농가 가운데 순수 농가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겸업농가의 비중은 60% 내외였고, 이 두 부분의 농가의 일인당 소득은 2,010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성장이 1% 떨어졌다.

5.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

2000년도 도시주민 일인당 소득은 6,280원으로 농촌주민 순소득의 2.8배로 그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 15% 확대되었다.

6. 농외소득으로의 정책전환

농촌주민 소득성장 폭이 비록 계속 내려갔지만 중시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다. 즉 농민들의 임금성격의 소득과 농가의 비농업산업으로부터의 소득이 농민소득의 주요한 성장 요인으로 된 점이다. 통계조사 가운데, 농민 순소득의 주요한 것은 임금성격의 보수소득, 가정경영 농업(농, 립, 목, 어업)소득, 가정경영 2,3차산업 소득, 전환 및 재산성 소득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도 전국 농민 일인당 임금성격의 소득은 701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71위안 증가하였다. 또한 농가가 경영한 2,3차산업으로부터의 소득은 338위안으로, 이 둘을 합친 농민의 비농업산업으로부터의 소득이 1,039위안으로 전체 소득의 46%이다. 임금과 비농업산업으로부터의 소득 증가는 농민 순소득 증가량의 208.3%이다. 농업부 향진기업국 통계에 의하면 농민들이 향진기업으로부터 얻은 임금소득은 농민 순소득의 30%(1995년)에서 34.5%(2000년)으로 늘어났다. 농촌의 농외산업의 주체는 향진기업으로, 많은 농가들의 비농업산업 경영을 통해 향진기업에 투자하여 발전한 결과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농촌주민 소득의 주체는 현재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 주로 농업경영 소득 위주에서 차츰 농촌 농외산업(주로 향진기업과 농가의 비농업산업 경영)의 발전이 위주로 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의 변화 추세는 이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농촌의 잉여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으로 향촌 인구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농업과 농촌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통해 농촌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즉 농촌의 비농업산업 발전환경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정책수단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미래 농민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 「中華工商時報」 2001年 4月 26日字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중국의 채소산업 특징

최근 십여년 사이에 중국의 채소산업은 몇 가지 현저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83년은 겨우 410만ha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0만ha가 되어 17년 사이에 무려 257% 늘었다. 생산량도 90년에 1억 9,519만톤에서 2000년에는 4억 4,00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고유품종이 개량되었고 해외 신품종이 도입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20여 종밖에 재배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30종 이상에 달하고 있다. 고유채소의 품종 개량과 함께 최근 해외에서 수천종의 신품종이 도입되고 있다.

셋째, 주요채소, 특수채소, 그리고 서양채소가 함께 재배되고 있다. 배추, 무, 오이, 파, 토마토, 가지, 고추 등 7종류의 채소는 중국의 주요채소이다. 1999년 전체 채소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4%, 생산량은 62.9%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이러한 채소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역으로 잘 팔리는 특수채소 등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버섯과 표고류는 523만톤으로 78년에 비해 100배 늘어났다.

넷째, 시설채소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1999년에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시설채소의 면적은 120만ha를 상회하였으며, 그 가운데 온실은 35만ha에 달하고 있다. 멀칭 재배하고 있는 채소는 40종에 달하고 있다

다섯째, 유기채소 생산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992년부터 무농약·무화학비료, 저농약·저화학비료를 중심으로 한 「유기식품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영양가치와 부가가치가 높은 안전식품에 속하는 채소류 유기식품이 속출하여 소비자의 호평을 얻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출하되고 있다. 현재 무공해 채소 등의 재배면적은 70만ha에 달하고 있다.

여섯째, 주산지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채소생산 1위인 산동성의 재배면적은 전국의 11%, 생산량은 16%에 달하고 있다.

일곱째, 외국과의 기술교류와 공동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해외의 많은 기업이 중국의 채소생산, 가공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의해 채소의 품질, 수송, 보관 및 가공 등에 관한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채소생산이 진흥됨에 따라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의 채소소비량도 크게 늘고 있다. FAO 통계에 의하면, 1999년 중국 1인당 1년간 채소 소비량은 204kg에 달하며,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의 채소생산 잠재력은 매우 크다. 21세기 중국 채소생산은 더욱 발전해 갈 것이다. 진흥방향은 생산면에서는 더욱 기지화, 시설화, 다양화와 산업화로 추진해 가고, 소비면에서는 균형화, 간편화, 無害化, 보건화와 영양화로 진전해 갈 것이다.

劉志仁 中國 農業部 農村經濟研究中心 高級研究員
(資料: 「日本農業新聞」, 2001年 4月 16日字에서)

프랑스 경영국토계약(CTE) 체결 부진

1. 2000년말 현재 3,500건 체결

1999년 7월 제정된 프랑스의 새로운 농업기본법의 핵심 중의 하나가 국가와 농업인이 개별적으로 농업경영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영에 관한 국토계약제도(CTE)’의 도입이었다.

그 진척상황을 계약건수로 보면, 프랑스 정부는 당초 2000년말까지 5만건, 2001년말까지는 5만건 추가하여, 합계 10만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계약건수는 2000년말까지 3,500건 정도에 그치고 있어 목표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2. 계약체결 프로세스

계약체결이 부진한 것은 이 제도의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TE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卍지사가 정하는 표준계약에 적합해야 한다. 이 표준계약은 복수의 표준시책(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생울타리 보전등)로 구성)으로 구성되거나, 이 표준시책은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명세(표준시책 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해 그 목적, 수단, 달성해야 할 성과, 지불금액 등을 규정)를 포함한다.

이러한 표준계약, 표준시책, 계약명세는 卍농업방향설정위원회(CDOA)

의 의견을 듣고서 州지사가 결정하게 되어있지만, 결정시에는 전국농업방향설정위원회(CSO)의 의견을 듣고서 농업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 표준계약을 지역의 농업·사회·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작목별로 작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오가론느州의 경우는 환경에 관한 것이 대략 2000년 7월, 경제·사회에 관한 것이 2000년 말에 완성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당초 계획은 전체 농가 60만호의 6분의 1인 10만호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어서 일조일석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주의 제도도입기반이 정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 2년 정도는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오가론느주 사례

오가론느주는 스페인에 인접한 지역으로 농가수 8,000호, 경지면적 36만 ha의 피레네산맥이 지나가는 경사지가 많은 중산간지역의 영세 농가지역이다. 이 주는 2000년에 CDOA의 승인을 받아 CTE는 261건에 달하며, 당시 프랑스 전체가 3,500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많은 숫자이다. 이것은 원래 당해지역의 농업형태가 CTE에 적합하였고, 또 농업회의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261호의 농가에 대한 평균지급액은 5년간 210,900프랑(1프랑은 약 170원으로 환산하면 약 3,585만원)이며, 이 중에서 56,700프랑이 경제·사회적 측면에 대한 보조이고, 나머지가 환경적 측면에 대한 보조이다.

경제적 측면의 계약은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관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81호의 비육우 농가 중 60호 농가가 품질에 관한 표시, 라벨과 생산자조직에 의해 발전해 온 ‘오츠크지방의 맛’에 새롭게 참가하거나, 그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대규모 농가 178호 중 68호가 농산물 집하업자의 의향에 따른 품질로 생산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집약적인 대규모 농가에 의한 환경오염의 폐해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조방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JETRO, Food&Agriculture, no. 2327(2001. 3. 5)에서)

세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식부동향

ISAAA(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는 개도국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보급을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서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에 센터를 가지고 있다. ISAAA의 자료를 근거로 GMO에 대한 식부동향을 소개한다. ISAAA에 관한 정보는 ISAAA 홈페이지 www.isaaa.org 에서 입수할 수 있다.

1. 2000년 GMO 식부면적은 4,000만ha

GMO의 상업적 생산이 본격화 된 96년 이후, 세계적으로 GMO의 생산은 급속히 확대되어 2000년 생산면적은 96년의 25배인 4,300만ha로 전망되고 있다<표1 참조>.

그러나 99년에는 전년대비 1,210만ha나 생산면적이 증가한 데에 대해 2000년의 증가는 310만ha로 4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어, 증가둔화를 볼 수 있다. 2000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8%이다.

표 1 세계 GMO 식부면적

단위: 100만ha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면 적	0.0	1.7	11.0	27.8	39.9	43.0

2. 생산중심은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GMO의 상업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96년 6개국에서 98년에는 9개국, 99년에는 12개국에 달하고 있다<표2 참조>.

세계 GMO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70%, 아르헨티나 21%, 캐나다 7%, 중국 1%이며, 이 4개국에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8개국 가운데 10만ha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남아프리카와 호주 2개국이다.

표 2 국가별 GMO 생산면적

단위: 면적/100만ha

국명	1998	1999	2000	시장점유율(%)
미국	20.5	28.7	30.3	70
아르헨티나	4.3	6.7	8.8	21
캐나다	2.8	4.0	3.0	7
중국	<0.1	0.3	0.5	1
남아프리카	<0.1	0.1	0.2	<1
호주	0.1	0.1	0.2	<1
루마니아	-	<0.1	<0.1	<1
멕시코	0.1	<0.1	<0.1	<1
불가리아	-	<0.1	<0.1	<1
스페인	<0.1	<0.1	<0.1	<1
독일	-	-	<0.1	<1
프랑스	<0.1	<0.1	<0.1	<10
포르투갈	-	<0.1	-	0
합 계	27.8	39.9	43.0	100

주 : <0.1은 10만ha 미만, <1은 1% 미만, -는 당해년도 생산실적이 없는 것을 말한다.

2000년의 GMO 생산을 99년과 비교하면 캐나다에서 유전자변형 카노라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 미국에서도 Bt콘의 감소 등으로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데 비해, 아르헨티나는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의 증가, 중국은 Bt면화의 증가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아프리카에서도 유전자변형 옥수수, 면화 생산이 배증하고 있다.

이 결과 GMO 생산면적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눈 경우,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년 86%에서 2000년에는 78%로 저하하고 있다.

3. 제초제 내성대두 생산이 최대

2000년의 GMO 생산을 작물별로 보면 대두가 2,500만ha, 옥수수가 1,000만ha, 면화가 500만ha, 카노라가 300만ha이며, 이러한 4작물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대두의 대부분은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라운드업레디 대두로 2000년에는 세계 총생산의 34%, 미국의 54%, 아르헨티나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2000년에는 미국, 캐나다에서 감소했다. 그 이유로는 Bt콘의 표적인 아와노메이가의 피해가 99년은 비교적 적어서 유인이 적었던 것, GMO 장래성의 불투명감이 식부를 유보시키는 원인이 된 것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시장점유율 5%에서 20%로 급증, 남아프리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세계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생산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7%에 달하고 있다.

표 3 작물별 GMO 생산면적 · 시장점유율

	단위:100만ha			
	대두	옥수수	면화	카노라
총식부면적	72	140	34	25
GMO식부면적	25	10	5	3

유전자변형 면화는 2000년은 전년대비 40%이상 증가하여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6%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점유율은 72%, 중국에서는 10%이다.

2000년산 유전자변형 카노라는 캐나다의 생산감소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 캐나다의 감소이유는 보통 것도 포함한 카노라 전체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 유전자변형이 아닌 제초제내성의 품종이 증가하고 있는 것, 카노라가격의 하락에 따라 값싼 보통 품종으로 복귀가 보여지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전자변형 카노라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11%이다.

(자료: JETRO, Food&Agriculture, no. 2319(2001. 1. 8)에서)



국제기구 논의동향

WTO 체제의 수출보조 현황과 협상 쟁점

WTO 체제의 수출보조 현황과 협상 쟁점

1. 국별 수출보조 현황

UR 협상에서 수출보조는 1995년부터 6년 동안 보조금액 기준 36%와 보조물량 기준 21%를 감축하는 데 합의하였다. 개발도상국은 우대조치를 인정하여 10년의 이행기간 동안 수출보조 지출액 기준 24%, 물량 기준 14%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수출보조의 감축약속은 기초 농산물 혹은 품목군별로 수출보조를 계산하여 각각 감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보조분야와 달리 품목간 이행의 신축성이 줄어들었으며, 유사한 품목 내에서만 융통성이 인정되었다.

수출보조는 감축 대상이 되는 농산물을 밀과 밀가루, 사료곡물, 쌀, 유지종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22개 품목으로 예시하여 품목별 감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보조분야에서는 물량 및 재정지출 모두를 동시에 연도별로 약속된 수준까지 균등 감축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행약속에서 제시된 특정연도 수출보조 상한을 초과하여 지불할 수 있는 융통성을 인정하고 있다.

수출보조 균등감축의 융통성 부여는 이행기간 중 재정지출의 경우 기준연도 보조액의 3%, 물량기준의 경우 1.75% 수준을 특정연도에 가산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되, 전체 감축약속의 누적치는 본래의 감축약속 한도 내에 들어야 한다.

UR 협상에서 수출보조 감축 의무가 있음을 통보한 회원국은 모두 25개국이다. WTO에 통보된 국별 수출보조 제공 품목을 보면, UR 협상에서 수출보조 통보 품목으로 제시된 22개 품목(군) 이외에 기타 농산물, 모든 농산물, 혼합물 등으로 통보된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와 파나마는 수출보조 감축 대상 농산물을 모든 농산물로 표기하였으며,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등은 예시된 22개 농산물 이외에 기타를 포함하고 있다.

수출보조가 지급되는 품목군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과일류와 채소류로 회원국들이 감축의무를 통보한 품목수의 합은 모두 121개에 달한다. 다음은 기타 농산물(90개 품목)과 사료곡물(18개 품목) 등이다. 국가별로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있는 품목수를 보면 베네수엘라 72 품목, 남아프리카 공화국 62 품목, 터키 44 품목, 불가리아 44 품목 등이다. 수출보조 지급 규모가 가장 큰 EU는 20개 품목이 감축대상으로 통보되어 있다. 미국은 13개 품목을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과실류와 채소류 또는 기타로 분류된 품목이 많은 국가들이 수출보조 감축 대상 품목수가 많다. 케언즈 그룹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수출보조 감축 의무가 있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양허된 수출보조 지급 기준보다 적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UR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우루과이는 실제 지급되는 수출보조가 거의 없으며, 캐나다는 이행 초기연도에 양허수준의 60%에 가까운 수출보조 지급 실적이 있었으나 1997년과 1998년도에는 수출보조 지급 실적이 없다. 수출보조 규모가 큰 EU와 미국은 수출보조 지급 비율도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EU는 1995-98 평균 금액 기준으로 양허 수준의 60%에 이르는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물량 기준으로는 80%에 이르는 것이다. 1998년의 경우 EU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은 물량기준으로 양허 수준의 90%를 넘었다.

표 1 수출보조 감축의무 통보 국가별 품목 분류

국별	품목(그룹)	품목수
호주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과일 및 채소	5
브라질	사료작물, 식용유, 박류, 설탕, 기타 유제품, 쇠고기, 가금육, 와인, 과일 및 채소, 담배, 면화, 기타	16
불가리아	밀, 유지작물,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산 동물, 달걀, 와인, 과일 및 채소, 담배, 가공품	44
캐나다	밀, 사료작물, 유지작물, 식용유, 박류,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과일 및 채소, 가공품	11
콜롬비아	쌀, 설탕, 쇠고기, 과일 및 채소, 담배, 면화, 기타	18
사이프러스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와인, 과일 및 채소	9
체코공화국	밀, 사료작물, 식용유, 설탕, 탈지분유,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와인, 과일 및 채소, 기타	16
유럽연합	밀, 사료작물, 쌀,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달걀, 와인, 과일 및 채소, 담배, 가공품, 기타	20
헝가리	밀, 사료작물,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산 동물, 와인, 과일 및 채소	16
아이슬란드	기타 유제품, 양고기	2
인도네시아	쌀	1
이스라엘	과일 및 채소, 면화, 기타	6
멕시코	밀, 사료작물, 설탕, 과일 및 채소	5
뉴질랜드	모든 농산물	-
노르웨이	버터,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달걀, 과일 및 채소, 가공품, 기타	11
파나마	모든 농산물	-
폴란드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탈지분유, 기타 유제품, 쇠고기, 가금육, 산 동물, 과일 및 채소, 기타	17

(표 1 계속)

국별	품목(그룹)	품목수
루마니아	사료작물,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버터,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산 동물, 달걀, 와인, 과일 및 채소	13
슬로바키아 공화국	밀, 사료작물, 식용유, 설탕, 탈지분유,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와인, 과일 및 채소, 기타	17
남아프리카 공화국	밀, 사료작물, 유지작물, 식용유, 설탕,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달걀, 와인, 과일 및 채소, 담배, 면화, 기타	62
스위스	기타 유제품, 산 동물, 과일 및 채소, 가공품	5
터키	밀, 사료작물, 식용유, 버터,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가금육, 양고기, 달걀, 과일 및 채소, 담배, 기타	44
우루과이	쌀, 박류, 버터	3
미국	밀, 사료작물, 쌀, 식용유, 버터, 탈지분유, 치즈, 기타 유제품,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산 동물, 달걀	13
베네수엘라	사료작물, 쌀, 기타 유제품, 과일 및 채소, 담배, 기타	72

자료: WTO 사무국, G/AG/NG/S5, 2000. 11.

미국은 1995-98 평균 금액 기준으로 양허 수준의 50%, 물량 기준으로 57%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1998년도 미국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은 양허 수준의 70%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보조금 지급이 많은 미국과 EU는 수출보조 감축의무에 있어서 수출보조 물량보다는 보조액에 보다 많은 여유가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양허 수준 대비 수출보조 지급 실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수출보조는 절대액 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기간에 따라서는 양허 수준보다 많은 수출보조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1997년과 1998년에 물량 기준 수출보조 지급 실적이 125%와 152%로 양허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도 물량 기준 또는 금액 기준으로 양허 수준을 초과하였다.

반면 국내보조를 포함하여 농업에 대한 보조가 거의 없어 WTO 농산물 협상에서 시장개방과 보조금 철폐에 가장 적극적인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수출보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은 매우 작은 규모이다.

수출보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EU로 연평균 60억 달러의 수출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UR 협상 결과 이행 이후 4년간 회원국들이 지급한 총 수출보조액 266억 달러의 89%에 달하는 것이다. EU의 수출보조는 주로 밀과 사료곡물, 버터 등 유제품, 그리고 쇠고기에 지급되고 있다. 반면 쌀, 유지작물, 과실류와 채소류 등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수출보조금이 지급된다. 결국 EU의 수출보조는 국제적으로 교역량과 교역국가가 많은 사료곡물과 축산물에 집중되고 있어 무역 마찰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스위스의 수출보조 규모는 1995-98 기간에 14억 달러로 회원국들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전체 수출보조의 5%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미국은 1995-98 기간에 4억 달러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여 연평균 1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 지급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수출보조는 주로 축산물 수출에 이용되고 있어 EU의 경우와 비슷하다.

EU, 미국, 스위스 등 3개국이 지급하는 수출보조는 회원국 전체 수출보조의 96%에 달한다. 따라서 기타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규모는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작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표 2 국별 수출보조 사용실적(양허수준 대비 사용 비율, %)

	1995		1996		1997		1998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호주	0	0	0	0	0	0	6	3
브라질	0	0	0	0	0	0	0	0
캐나다	59	58	8	5	0	0	0	0
콜롬비아	15	59	20	76	17	125	22	152
사이프러스	164	86	50	44	46	129	75	98
체코공화국	28	51	32	34	38	34	38	33
유럽연합	54	65	61	85	51	82	69	91
헝가리	58	23	31	22	20	18	73	21
아이슬랜드	26	61	4	10	1	1	-	-
이스라엘	44	69	31	63	13	20	9	15
노르웨이	68	69	44	45	83	94	65	78
뉴질랜드	0	-	0	-	0	-	0	-
슬로바키아공화국	12	32	23	28	32	56	29	56
남아프리카공화국	15	15	51	52	35	45	28	3
스위스	70	81	73	81	45	34	65	55
터키	47	71	92	89	71	72	66	70
우루과이	0	0	0	0	0	0	0	0
미국	22	35	56	50	50	70	74	73
베네수엘라	19	37	49	29	11	25	-	-

주 : - 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의무가 없는 경우를 나타냄. 통보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 국가는 제외하였음.

자료 : WTO 사무국, G/AG/NG/S5, 2000. 11.

UR 협상 타결 당시 수출보조 감축 의무가 없다고 통보한 일부 국가들 가운데 수출보조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태국, 튀니지아, 파키스탄, 모로코 등 5개국은 1995-98 기간에 일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발도상국에게 허용되는 수출보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WTO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과실류와 화훼류에 대하여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태국은 쌀, 계란, 매니옥 등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파키스탄과 튀니지아는 과실류와 채소류에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다.

표 3 회원국별 수출보조 지급 실적

단위 : 백만\$

	1995	1996	1997	1998	계
호주	0	0	0	1	1
브라질	0	0	0	0	0
캐나다	38	4	0	0	42
콜롬비아	18	22	25	23	88
사이프러스	3	3	2	4	12
체코공화국	40	42	40	42	164
EU	6,292	6,684	4,915	5,843	23,734
헝가리	41	18	10	12	81
아이슬랜드	6	1	0	-	7
인도네시아	0	0	0	0	0
이스라엘	19	13	6	1	39
멕시코	0	-	-	-	0
뉴질랜드	0	0	0	0	0
노르웨이	83	78	102	77	340
폴란드	0	16	9	14	39
루마니아	0	0	0	-	0
슬로바키아공화국	8	8	13	12	46
남아프리카공화국	40	42	18	3	103
스위스	447	369	295	292	1,403
터키	30	17	39	29	115
미국	26	122	112	147	407
우루과이	0	0	0	0	0
베네수엘라	3	20	2	-	25

자료: WTO 사무국, G/AG/NG/S/12, 2000. 6.

표 4 감축의무 미통보 국가의 수출보조 실적

단위: 백만 \$

	1995	1996	1997	1998	계
한국	2	3	3	3	11
모로코	1	-	1	1	3
태국	15	6	5	-	26
파키스탄	0	2	2	3	7
튀니지아	0	2	5	6	13

자료 : WTO 사무국, G/AG/NG/S/12, 2000. 6.

수출보조 감축의무를 통보한 25개국의 품목별 수출보조 지급 실적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축산물에 대한 보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유제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양허 수준 대비 83%(1995-98 평균)의 수출보조 지급 실적을 나타내 22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지급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지급 실적이 높은 품목은 계란으로 81%이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66%와 6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보조금을 받고 수출되는 품목 가운데 물량이 많은 품목은 밀과 사료곡물로 각각 1,500만톤 규모가 수출보조금을 받고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급 품목수가 많은 것은 과실류와 채소류이며 연간 700만톤 정도가 수출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쌀은 수출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되는 물량이 15만톤 수준이다. 유지작물과 면화 등에 지급되는 수출보조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최근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료곡물은 시장에 대한 시장왜곡 현상과 품목 편중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과실류와 채소류, 쌀과 유지작물 등은 수출 보조금 지급 실적이 매우 낮은 품목으로 상대적으로 시장 왜곡 현상이 심하지 않은 분야로 볼 수 있다.

표 5 품목별 수출보조 사용 실적

단위 : 천톤, %

	1995			1996			1997			1998		
	양허량	보조량	지급 비율	양허량	보조량	지급 비율	양허량	보조량	지급 비율	양허량	보조량	지급 비율
밀	59,452	4,350	7	55,463	14,410	26	51,871	13,038	25	48,277	14,023	29
사료작물	28,156	7,666	27	23,471	11,845	50	22,301	8,826	40	21,129	15,311	72
쌀	803	99	12	745	227	30	686	155	22	628	144	23
유지작물	2,799	5	0.1	2,697	4	0.1	2,596	0	0	2,491	0	0
식용유	1,821	202	11	1,703	140	8	1,749	97	6	1,529	10	1
박류	360	0	0	329	0	0	319	0	0	308	0	0
설탕	6,342	1,032	16	4,699	1,459	31	4,553	2,061	45	4,243	1,884	44
버터	631	155	25	602	288	48	573	187	33	529	167	32
탈지분유	754	399	53	720	361	50	683	295	43	646	380	59
치즈	557	446	80	529	424	80	500	350	70	460	253	55
기타유제품	1,563	1,267	81	1,471	1,248	84	1,405	1,227	87	1,342	1,060	79
쇠고기	1,633	1,020	65	1,560	1,178	76	1,483	962	65	1,258	729	58
돼지고기	679	381	56	654	296	45	630	225	34	605	748	124
가금육	854	443	58	813	401	49	715	362	51	644	370	57
양고기	29	2	7	29	1	3	28	1	4	26	1	4
산 동물	157	44	28	152	55	36	147	36	24	123	5	14
달걀	130	97	75	125	70	56	119	106	89	114	116	102
포도주	557	81	15	538	184	34	519	85	16	485	7	1
과일, 채소	8,057	1,923	24	7,679	2,619	34	7,460	2,686	36	6,904	2,407	35
담배	278	25	9	260	13	5	239	4	2	222	7	3
면화	95	0.04	0.04	93	0	0	92	0	0	89	0	0

자료: WTO 사무국, G/AG/NG/S/5, 2000. 5.

2. WTO 농산물협상의 수출보조분야 쟁점

수출보조의 철폐 또는 대폭 감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국가는 ASEAN과 케언즈 그룹 국가들이다. 케언즈 그룹은 수출보조를 감축 이행 첫해에 상당 수준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철폐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수출보조의 우회적인 지급이나 수출신용 등 불공정한 수출경쟁에 대하여 규정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회원국 전체 수출보조액 가운데 89%가 EU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수출보조금이 주로 지급되고 있는 품목도 밀, 사료곡물, 축산물 등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 등을 지적하며, 수출보조가 특정 국가 및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ASEAN은 선진국의 경우 수출보조를 즉각 철폐하고 개발도상국들은 개도국 우대에 해당하는 수출보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케언즈 그룹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UR 이후 축산물을 제외하고는 수출보조가 대부분 없어지고, 소맥도 주요 수출선과 대부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혹은 철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수출신용 문제는 OECD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출신용의 규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단일 수출 창구로 운영되는 독점적 수출권의 폐지, 국영무역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기금의 철폐 등 수출 국영무역에 대한 규율 강화에는 적극적이다.

EU는 수출보조에 대한 규율 강화나 감축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이며, 철폐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출보조 문제는 수출신용이나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등 모든 형태의 수출 관련 지원 형태도 협상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WTO는 다른 국제적 협상에서 합의된 수출신용 관련 사항이 WTO 규범이 될 수 있도록 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6 주요 국가별 수출보조 관련 제안서 내용

국 가	제 안 내 용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 감축 ○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수출보조 유형 유지·확대 - 수출보조 감축의무 경감, 개도국이 국제시장에서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수출관련 조치들에 대한 규율 마련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는 이행기간동안 점차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철폐
E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만 규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도 공평하게 다루어야 함(level playing field)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적인 것들을 같은 기초에서 다룰 때 수출보조 감축에 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
케언즈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농산물에 대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금지 - 협상에서 잔존 수출보조 철폐시기에 대해 협의. - 이행 첫해에 재정지출이나 물량면에서 수출보조를 상당수준 감축하고 둘째 연도부터는 나머지 수출보조를 보다 가속적으로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철폐. - 감축기준은 선진국은 2000년, 개도국은 2004년 양허수준 ○ 수출보조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이고 강화된 규범 마련.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그리고 비상업적 거래 등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불공정한 수출경쟁 철폐까지를 포함. ○ 개혁과정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WTO 협상기간 동안 수출보조 지급을 최대한 자제 ○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보다 길게 하고 - 수출보조가 철폐될 때까지 농업협정 9조 4항에 의한 개도국 우대조치를 확대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금 - 수출보조 금액 및 물량을 추가적으로 감축 - 수출보조 이월(roll-over) 등에 대한 규율강화 - 수출보조금 단가를 양허하고 이행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삭감 - 개도국의 관심 품목·시장에 대한 수출보조금 규율 강화 - 수출보조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국내지지도 수출규율의 대상이 되도록 규율 강화

(표 6 계속)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조, 조세혜택, 국영무역, price pooling, 수출신용 등 수출 관련 모든 조치에 대해 규범 제정 ○ 추가 감축은 신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에 따라 품목군별로 감축 - 감축총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정한 A품목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감축을 하는 대신 다른 B품목의 (보조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TC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균형적 접근방식의 일부로서 수출경쟁 관련 조치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범 제정 ○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및 식량원조 등 모든 형태의 수출관련 조치를 동등하게 다루어야 함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들은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즉각 철폐하고 앞으로도 무조건 금지 ○ 개도국들은 농업협정 9조 4항에 따른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를 계속 유지
쿠바 등 11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 수출보조 즉시 철폐


자료 : 농림부, 「각국의 WTO 농산물 협상 제안서」, 2001. 4

우리나라와 일본은 감축의무 수출보조가 거의 없는 상태로 수출보조의 감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개도국에 허용되는 수출보조의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보조의 이월(Roll-Over)에 대하여는 규율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출보조 효과를 나타내는 국내보조도 수출보조의 규율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지난 UR 협상에서와 달리 미국의 입장이 케언즈 그룹과 같이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이나 완전 철폐로 바뀌어 이번 농산물 협상에서 수출보조 분야 협상은 대폭 감축 주장이 우세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우리 나라와 일본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보조와 관련한 협상은 우리 나라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현재 개도국 허용된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도국에 허용되는 수출보조는 유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되 협상에서 이 분야를 동조세력의 구축이나 공격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수세적인 입장인 EU와 공격적인 미국 및 케언즈 그룹의 입장차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최세균 skchoi@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농산물무역 정보

중국 농산물무역의 동향과 전망

중국 농산물무역의 동향과 전망

2000년 중국 농산품의 대외무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넘어서서 대폭적으로 증가한 긍정적인 국면으로 나타났다. 총수출입은 268억 달러로, 전해에 비해 23%가 증가하여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 가운데 수출액이 156억 달러로 15%가 증가하였고, 수입액이 112억 달러로 37%가 성장하였다. 농산품의 교역 순이익은 44억 달러로 17% 줄어 들었다. 농산품 무역총액이 전체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1999년에 비해 0.4% 떨어졌다. 그 가운데 농산품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0.7% 하락하였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액의 2%로 1.3% 하락하였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식량무역 대폭 증가, 특히 옥수수 수출과 대두 수입 증가

식량 수출입은 1999년 수입초과 상황에서 수출 초과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식량수출은 약 1400만톤으로 85%가 증가하였고, 수입은 1,357만톤으로 76% 증가하여, 식량 수출입은 전년도에 비해 13만톤 순수입에서 43만톤 순수출로 변화하였다.

식량의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수입된 식량은 고품질로서 그 가격이 중국의 식량 수출가격보다 높아서 무역역조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41%가 늘었고, 수입액은 29억 달러로 102% 늘어났다. 식

량의 무역역조는 전년도의 1.6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식량 수출입 품종구조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수출로는 주로 옥수수 수출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1,047만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 증가하였다. 옥수수는 수출 식량 총량의 75%를 기록하고, 전년도에 비해 18% 증가하였다. 수입으로는 대두 수입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1,042만톤으로 141%가 늘어나 전체 식량수입의 77%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21% 늘어났다. 2000년 대두 수입량은 1997~1999년의 3년간 수입한 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밀 수입은 87만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배가 늘었고, 보리 수입액은 197만톤으로 수입식량의 15%를 차지했으며 옥수수는 수입이 거의 없었다.

2. 면화, 당료, 채소, 과일, 축산, 수산물 무역 성장유지, 식용식물기름의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원면 수출이 계속하여 증가하여 전년도의 24만톤에 29만톤으로 늘어났다. 수입은 4.7만톤으로 3% 늘어나, 순수출량은 전년도의 19만톤에서 24.5만톤으로 늘어났다. 식용식물기름 수출량은 11만톤으로 15% 늘어났고 수입량은 172만톤 감소하여 17%가 줄어들었다. 그 중 유채기름은 최근 수출량이 줄어 전년도의 2배가 되어 5.4만톤이었고, 수입량은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전년도의 6.9만톤에서 0.4만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콩기름 수입량은 전년도의 80만톤에서 31만톤으로 감소하였고 수출량도 35.3만톤으로 34%가 감소하였다. 당료 수출은 41.5만톤으로 12.9%가 성장하였고 수입은 64.1만톤으로 53.7% 증가하여 순수입이 322.6만톤으로 3.6배가 증가하였다.

채소와 과일의 수출입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추세를 보였다. 채소 수출은 13.4%가 늘어나 315만톤에 달하였고, 수입은 10%가 늘어나 8.6만톤을 기

록하였다. 과일의 수출은 14.3%가 늘어나 135.8만톤이었고, 수입은 41%가 늘어나 93.8만톤을 기록하였다. 축산품과 수산품의 수출입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입이 수출을 크게 앞질렀다. 축산과 수산품 수출액은 각각 38.2억 달러와 37.8억 달러로 19%와 22%가 성장하였다. 수입액은 각각 52.6억 달러와 18.3억 달러로 각각 34%와 43%가 늘어났다.

3. 수출방식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수입방식에서는 일반무역이 계속 증가, 가공무역은 감소

일반무역 방식의 수출은 농산품 수출액의 78.2%로, 1.9% 성장하였고, 가공무역 수출은 농산품 수출액의 17.5%로 0.7%로 감소하였다. 일반무역 방식의 수입은 전체 농산품 수입액의 74%로 5%가 늘어났고, 가공무역 방식의 수입은 전체 농산품 수입액의 21.9%로 4% 하락하였다. 일반무역 방식의 수입은 1998~2000년에 기간에 각각 10%, 10%, 5%로 증가하여 중국 농산품 수입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다.

4. 수출입 대상 국가가 다변화

1998년, 1999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중국의 농산품 수출이 계속 하락하였는데, 2000년에는 상황이 바뀌어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수출액이 각각 16%와 10%가 늘어났고, 두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74%와 13%가 되었다. 동시에 북미에 대한 수출도 25% 증가하여 전체시장의 8%를 차지하였다.

수입대상국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남미와 대양주, 북미로부터의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 각각 69%, 51%, 48%가 증가하였다. 남미로부터의 수입량은 유럽을 초과하여 중국의 제3대 수입대상국이 되었다. 현재 수입

시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북미 30%, 아시아 20%, 남미 18%, 유럽 16%, 대양주 15%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과 그 비중을 보면, 일본 35%, 홍콩 12%, 한국 10.7%, 미국 7.4%, 말레이시아 2.9%이다. 주요한 수입대상국은 미국 23%, 오스트레일리아 12%, 아르헨티나 7%, 캐나다 7%, 브라질 5% 등이다.

5. 동부, 중부, 서부 농산품 수출입이 성장, 특히 중부 지구가 현저한 성장추세

2000년의 중부, 서부지구 무역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게 되었다. 동부, 중부, 서부의 농산품 수출증가는 각각 15%, 20%, 12%로 증가하였고 수입량 증가는 각각 38%, 26%, 15%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 농산품 수출이 가장 많은 성을 차례로 보면, 산둥성(山東省), 광둥성(廣東省), 저장성(浙江省), 푸젠성(福建省), 랴오닝성(遼寧省)으로 이들 5개 성이 차지하는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한다. 농산품 수입이 많은 성의 순서는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여, 베이징(北京)이 전년도의 제5위에서 3위로, 랴오닝성은 7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많은 순서로 보면 광둥성, 산둥성, 베이징, 장쑤성(江蘇省), 랴오닝성 등으로, 이들 5개성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67%를 차지하고 그 가운데 베이징, 장쑤성, 랴오닝성의 수입량 증가가 현저하여 각각 60%, 29%, 87%를 나타내었다.

총괄적으로 2000년의 중국 농산품 무역은 대폭적으로 성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중국 농업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의 진척으로 인한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2001년도 농산품 수출입 전망

우선 국내적으로 환경변화를 보면 중국 경제가 근년들어 개혁과 발전으로 농산품 시장 수급이 충족되었고, 2001년도 중국의 거시경제 형세 역시 더욱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산품과 가공품의 수요는 차츰 증가하여 농산품 생산과 무역을 촉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국제적인 환경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실과 아시아 경제의 회복으로 중국의 대아시아 수출이 더욱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면, 농산품 무역에서 엄중한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 농산품 수출입은 WTO의 각종 규칙과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시장개방이 매년 확대될 것이며,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접합으로 중국 농산품 생산과 무역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수출입 무역도 크게 변할 것이다. 현재 중국 농산품은 가격과 생산비가 국제시장보다 높은 것이 많다. 따라서 경쟁원칙하에서는 중국 농산품 무역구조도 변화가 발생하여 수입증가와 수출부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00년 국내 식량생산으로 보면, 식량(주로 밀, 옥수수, 쌀)은 대폭적으로 감산되어 생산이 공급에 미치지 못하여 재고량으로 공급을 충당하였다. 이러한 것은 최근 몇 년간의 식량 재고압력을 감소시키고, 한편으로는 식량 수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2000년 중국의 식량 수출증가는 642만톤으로 그 가운데 옥수수가 616만톤 증가하여 식량 수출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옥수수가 약 2,300만톤 감산될 것이고, WTO 가입 이후 옥수수 수출에 대한 보조가 폐지되면 2001년도의 옥수수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2000년 밀의 수입량은 전년도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났으며 이것은 주로 국내의 우수한 품질의 밀에 대한 수요 증가로부터 발생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2000년 밀은 약 1,200만톤 감소되었고 2001년도의 밀 수입량은 따라서 더욱 늘어날 것이다. 2000년도 중국의 식량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은 대두에 있었는데, 이는 단기적인 수입량 과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미 대두시장의 공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2001년도에는 수입량이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종업 구조조정으로 보면, 중국의 채소, 과일, 경제작물과 우수품종의 재배면적이 부단히 확대되어 중국의 비교우위 발휘에 유리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2001년도 예측으로는 채소, 과일의 수출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최근 몇 년간의 채소, 과일 수입량의 특징으로 보면, 수입의 주요한 것은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01년도에도 역시 이러한 종류의 수입은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면화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비록 수출이 계속 증가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고, 반면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 현재 면화는 국내, 국제가격이 기본적으로 비슷하여 총량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에서 중국 면화는 고품질과 구조조정의 문제에 직면하여 수출 형세는 낙관하기 힘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도는 중국 농산품 무역구조가 전환되는 관건적인 시기로 수출입 무역 정황변화가 비교적 복잡하면서도 활발하게 나타나 전체 수출입 총량은 2000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자료 : 中國 農業部 信息中心 分析處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4)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4)

1.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전체 곡물

2000/01년도 세계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이 1999/00년도보다 줄어들어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8억 3,818만톤이 될 전망이다. 2000/01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5,627만톤과 생산량을 합친 21억 9,445만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4,500만톤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2000/01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4% 줄어든 18억 7,638만톤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대비 5.7% 줄어든 2억 6,486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가 될 전망이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3,800만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어서 2000/01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0.7% 감소한 3억 1,807만톤으로 줄어들고 전체 곡물 재고율도 17%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는 1999/00년도 재고율보다 약 1.9%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표 1 세계 전체 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 (전망)		변동률 (%)	
			2001. 3	2001.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2.89	1,873.05	1,835.91	1,838.18	△1.9	0.1
공 급 량	2,214.21	2,239.76	2,191.70	2,194.45	△2.0	0.1
소 비 량	1,847.49	1,883.50	1,879.20	1,876.38	△0.4	△0.2
교 역 량	256.09	280.78	264.63	264.86	△5.7	0.1
기말재고량	366.71	356.27	312.49	318.07	△10.7	1.8
기말재고율(%)	19.8	18.9	16.6	17.0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Apr. 10, 2001.

1.2. 쌀

2000/01년도 쌀 생산량은 1999/00년도보다 709만톤 정도 줄어들어 4억톤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610만톤, 중국도 4.3% 감소한 1억 3,300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2000/01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7% 늘어난 4억 354만톤으로 전년도보다 288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0/01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2.0% 줄어든 2,377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전망된다. 특히 베트남의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00/01년도에는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6.6%가 줄어든 6,15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재고량이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고율도 15.3%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표 2 국제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3	2001.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4.06	408.56	399.25	399.90	△2.1	0.2
공 급 량	450.10	468.53	464.28	465.11	△0.7	0.2
소 비 량	390.13	400.66	403.63	403.54	0.7	0.0
교 역 량	26.72	24.26	23.77	23.77	△2.0	0.0
기 말 재 고 량	59.98	65.91	60.65	61.57	△6.6	1.5
기말재고율(%)	15.4	16.5	15.0	15.3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Apr. 10, 2001.

1.3. 소맥

세계 밀 생산량은 1999/00년 5억 8,751만톤에서 2000/01년에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5억 8,06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과 러시아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2000/01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1999/00년 5억 9,839만톤보다 약간 줄어든 5억 9,341만톤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밀의 국제 교역량은 1998/9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1억 2,258만톤으로 감소하였다가 1999/00년 1억 3,519만톤으로 늘어났으나, 2000/01년에 다시 전년대비 6.1% 줄어든 1억 2,693만톤으로 될 전망이며,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21.9%가 될 전망이다.

2000/01년에는 소비량은 큰 변동 없으나 생산량 감소로 기말재고량이 전년대비 10.1% 감소한 1억 1,361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기말재고율도 전년의 21.1%에서 9.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제 소맥 수급 동향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3	2001.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88.80	587.51	580.38	580.67	△1.2	0.0
공 급 량	726.97	724.74	706.15	707.02	△2.4	0.1
소 비 량	589.75	598.39	597.22	593.41	△0.8	△0.6
교 역 량	122.58	135.19	126.93	126.93	△6.1	0.0
기 말 재 고 량	137.22	126.35	108.94	113.61	△10.1	4.3
기말재고율(%)	23.3	21.1	18.2	19.1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Apr. 10, 2001.

1.4. 옥수수

2000/01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5억 8,456만톤으로 전년보다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유럽 등의 생산량은 약간 증가하나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000/01년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간 줄어든 6억 344만톤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옥수수의 교역량 역시 전년보다 7.6% 줄어든 7,904만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교역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6%에 이를 전망이다.

2000/01년 옥수수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대폭 줄어든 1억 584만톤으로 전망된다. 미국, 아르헨티나, 유럽의 기말재고량은 늘어나지만 중국의 기말재고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3.1% 포인트 줄어든 17.5%가 될 전망이다.

표 4 국제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3	2001.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5.28	605.93	583.05	584.56	△3.5	0.3
공 급 량	702.60	727.86	707.83	709.28	△2.6	0.2
소 비 량	580.67	603.14	602.01	603.44	0.0	0.2
교 역 량	75.06	85.53	78.76	79.04	△7.6	0.4
기 말 재 고 량	121.93	124.72	105.82	105.84	△15.1	0.0
기말재고율(%)	21.0	20.7	17.6	17.5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Apr. 10, 2001.

1.5. 대두

세계 대두 생산량은 2000/01년에 사상 최대인 1억 7,028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생산국인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5.4% 늘어난 1억 6,908만톤으로 전망된다.

2000/01년 세계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4.9% 증가한 4,858만톤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8.8%에 이를 전망이며, 전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54.7%, 브라질이 25.0%, 아르헨티나가 11.1%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세 국가의 수출비중이 90.8%에 이를 전망이다.

2000/01년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2,798만톤으로 추정되어 전년의 2,688만톤과 비교하여 98만톤 정도 늘어나지만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16.7%에서 16.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비량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표 5 국제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3	2001. 4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9.75	159.44	169.58	170.28	6.8	0.4
공 급 량	184.84	185.44	196.43	197.16	6.3	0.4
소 비 량	159.93	160.48	168.38	169.08	5.4	0.4
교 역 량	38.67	46.31	48.58	49.17	6.2	1.2
기 말 재 고 량	26.74	26.88	27.82	27.98	4.1	0.6
기말재고율(%)	16.7	16.7	16.5	16.5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Apr. 10, 2001.

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1. 쌀

중립종(자포니카 계)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9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하락하여 2001년 4월 국제가격(4월 13일 기준)은 전년대비 33.6%, 전년 동월대비 37.3%, 전월대비 1.9% 하락한 톤당 286.6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1995년 여름이래 최저수준이다.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 톤당 221.80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0년 2월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5월에는 톤당 210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1년 4월(4월 13일 기준)에는 전월대비 6.6% 하락한 톤당 171.00 달러 수준이다. 이는 전년보다 19.2%, 전년동월대비로는 24.8% 낮은 수준이다.

2.2. 소맥

밀의 국제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 달러까지 폭등한 이후 1997/98년의 대풍작에 따라 1997년에는 153.1 달러로 하락하였다. 가격하락에 따라 1998/99년의 식부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1998/99년의 국제 밀 가격은 120 달러로 더욱 하락하였다.

국제 밀 가격은 1999년 12월에 톤당 112.44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0년 상반기에는 110~118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 8월에는 톤당 102.92 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2001년 4월(4월 13일 기준) 현재에는 117.58 달러로 이는 전월보다 2.3% 하락한 수준이다.

2.3. 옥수수

1996년 5월 톤당 209 달러까지 폭등했던 옥수수 국제가격은 연속된 풍작으로 1999년 7월에는 85.42 달러까지 폭락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회복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102.67 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80 달러로 하락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4월(4월 13일 기준) 현재 톤당 93.20 달러 수준으로 전월보다는 0.2% 상승하였다.

2.4. 대두

대두 국제가격은 1997년 5월에 톤당 331달러(미국 Gulf, 2등급, f.o.b.)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98, 1998/99년의 연이은 풍작에 따라 1998년에 234.33 달러, 1999년 7월에는 168.98 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 5월에는 톤당 211.72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2000년 8월에는 톤당 178.87 달러까지 하락하다가 12월에는 196.98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001년 4월(4월 13일 기준) 현재에는 171.69 달러로 전월보다 2.1% 하락하였다.

표 6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품 목	1999 평균	2000 평균	2000. 4	2001. 3	2001. 4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쌀(중립종)	500.56	431.70	457.45	292.11	286.60	△33.6	△37.3	△1.9
쌀(장립종)	255.60	211.68	227.25	183.00	171.00	△19.2	△24.8	△6.6
소 맥	122.06	110.28	110.75	120.37	117.58	6.6	6.2	△2.3
옥수수	92.1	91.94	99.39	92.98	93.20	1.4	△6.2	0.2
대 두	185.9	193.98	208.11	175.38	171.69	△11.5	△17.5	△2.1

주 :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장립종은 태국 1등급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급 가격임.

자료 : 한국경제신문, UNICOM.

표 7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3	2001. 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50.10	468.53	464.28	465.11	△0.7	0.2
기초재고량	56.05	59.98	65.03	65.21	8.7	0.3
생산량	394.06	408.56	399.25	399.90	△2.1	0.2
미국	5.80	6.50	6.03	6.10	△6.2	1.2
타이	15.59	16.50	16.60	16.83	2.0	1.4
베트남	20.11	20.75	21.10	21.10	1.7	0.0
인도네시아	31.85	33.45	33.50	33.11	△1.0	△1.2
중국	139.10	138.94	133.00	133.00	△4.3	0.0
일본	8.15	8.35	8.64	8.64	3.5	0.0
수입량	26.18	21.35	22.28	22.84	7.0	2.5
인도네시아	3.73	1.50	1.30	1.80	20.0	38.5
중국	0.18	0.28	0.30	0.30	7.1	0.0
일본	0.55	0.64	0.75	0.73	14.1	△2.7
소비량	390.13	400.66	403.63	403.54	0.7	0.0
미국	3.59	3.85	3.88	3.87	0.5	△0.3
태국	8.90	9.60	9.99	9.99	4.1	0.0
베트남	15.61	17.42	17.34	17.14	△1.6	△1.2
인도네시아	35.30	35.90	36.20	36.20	0.8	0.0
중국	136.07	137.00	136.60	136.80	△0.1	0.1
일본	9.10	9.45	9.30	9.30	△1.6	0.0
수출량	26.72	24.26	23.77	23.77	△2.0	0.0
미국	2.73	2.80	2.55	2.65	△5.4	3.9
태국	6.68	6.55	6.30	6.30	△3.8	0.0
베트남	4.56	3.37	3.80	4.00	18.7	5.3
기말재고량	59.98	65.91	60.65	61.57	△6.6	1.5
미국	0.69	0.87	0.78	0.78	△10.3	0.0
태국	1.06	1.41	1.72	1.95	38.3	13.4
인도네시아	3.88	2.93	1.52	1.64	△44.0	7.9
중국	27.50	26.56	20.00	20.00	△24.7	0.0
일본	2.49	1.96	1.30	1.30	△33.7	0.0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Apr. 10, 2001.

표 8 세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3	2001. 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26.97	724.74	706.15	707.02	△2.4	0.1
기초재고량	138.18	137.22	125.77	126.35	△7.9	0.5
생산량	588.80	587.51	580.38	580.67	△1.2	0.0
미국	69.33	62.57	60.51	60.51	△3.3	0.0
호주	21.47	25.01	21.00	21.00	△16.0	0.0
캐나다	24.08	26.85	26.80	26.80	△0.2	0.0
EU15	103.09	96.80	104.95	104.95	8.4	0.0
중국	109.73	113.88	102.00	102.00	△10.4	0.0
러시아	27.00	31.00	34.40	34.45	11.1	0.1
수입량	121.52	131.11	125.92	125.78	△4.1	△0.1
EU15	25.17	25.09	24.78	24.78	△1.2	0.0
브라질	7.30	7.56	7.90	7.90	4.5	0.0
북아프리카	16.82	16.62	17.20	17.40	4.7	1.2
파키스탄	3.13	2.00	0.15	0.15	△92.5	0.0
인도	2.20	1.37	0.05	0.10	△92.7	0.5
러시아	2.49	5.00	2.00	1.50	△70.0	△25.0
소비량	589.75	598.39	597.22	593.41	△0.8	△0.6
미국	37.69	35.38	36.31	36.31	2.6	0.0
EU15	88.21	87.21	93.54	92.54	6.1	△1.1
중국	115.57	117.00	114.00	114.00	△2.6	0.0
파키스탄	21.28	21.40	21.60	21.68	1.3	0.4
러시아	34.84	35.28	34.60	34.65	△1.8	0.1
수출량	122.58	135.19	126.93	126.93	△6.1	0.0
미국	28.36	29.65	29.94	29.94	1.0	0.0
캐나다	14.71	19.17	19.00	18.50	△3.5	△2.6
EU15	35.93	38.34	35.90	35.90	△6.4	0.0
기말재고량	137.22	126.35	108.94	113.61	△10.1	4.3
미국	25.74	25.85	22.70	22.57	△12.7	△0.6
EU15	18.07	14.41	13.55	15.70	9.0	15.9
중국	27.90	25.25	13.75	13.75	△45.5	0.0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Apr. 10, 2001.

표 9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3	2001. 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02.60	727.86	707.83	709.28	△2.6	0.2
기초재고량	97.32	121.93	124.78	124.72	2.3	0.0
생산량	605.28	605.93	583.05	584.56	△3.5	0.3
미국	247.88	239.55	253.21	253.21	5.7	0.0
아르헨티나	13.50	17.20	15.00	16.00	△7.0	6.7
EU15	35.30	37.29	38.63	38.47	3.2	△0.4
멕시코	17.79	19.24	18.00	17.69	△8.1	△1.7
동남아시아	15.74	14.61	15.17	14.47	△1.0	△4.6
중국	132.95	128.09	105.00	105.00	△18.0	0.0
수입량	75.55	79.62	79.11	78.88	△0.9	△0.3
EU15	11.77	10.87	10.61	10.63	△2.2	0.2
일본	16.34	16.12	16.00	16.00	△0.7	0.0
멕시코	5.62	4.91	6.00	6.00	22.2	0.0
동남아시아	3.12	4.50	4.40	4.50	0.0	2.3
한국	7.52	8.69	8.00	8.00	△7.9	0.0
소비량	580.67	603.14	602.01	603.44	0.0	0.2
미국	185.88	192.48	196.99	198.00	2.9	0.5
EU15	38.95	38.80	39.85	39.87	2.8	0.1
일본	16.44	16.32	16.05	16.05	△1.7	0.0
멕시코	23.04	23.65	24.40	24.10	1.9	△1.2
동남아시아	17.95	18.99	19.51	19.01	0.1	△2.6
한국	7.62	8.40	8.30	8.30	△1.2	0.0
중국	114.30	116.90	120.00	120.00	2.7	0.0
수출량	75.06	85.53	78.76	79.04	△7.6	0.4
미국	50.31	49.21	50.80	49.53	0.7	△2.5
아르헨티나	7.88	11.70	10.00	10.50	△10.3	5.0
중국	3.34	9.94	6.00	6.00	△39.6	0.0
기말재고량	121.93	124.72	105.82	105.84	△15.1	0.0
미국	45.39	43.63	49.30	49.56	13.6	0.5
아르헨티나	0.71	0.41	0.43	0.43	4.9	0.0
EU15	3.66	4.11	4.58	4.32	5.1	△5.7
중국	51.56	52.89	32.06	32.03	△39.4	△0.1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 Apr. 10, 2001.

표 10 세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톤

	1998/99 (실적)	1999/00 (추정)	2000/01(전망)		변동율(%)	
			2001. 3	2001. 4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84.84	185.44	196.43	197.16	6.3	0.4
기초재고량	25.09	26.74	26.85	26.88	0.5	0.1
생산량	159.75	159.44	169.58	170.28	6.8	0.4
미국	74.60	72.22	75.38	75.38	4.4	0.0
아르헨티나	20.00	21.20	25.00	26.00	22.6	4.0
브라질	31.30	34.00	35.50	35.50	4.4	0.0
중국	15.15	14.29	15.70	15.70	9.9	0.0
수입량	40.50	47.49	48.36	49.07	3.3	1.5
EU15	16.77	15.74	16.65	16.68	6.0	0.2
일본	4.81	4.90	4.75	4.75	△3.1	0.0
중국	3.85	10.10	9.30	10.20	1.0	9.7
소비량	159.93	160.48	168.38	169.08	5.4	0.4
미국	48.74	47.43	47.84	48.26	1.7	0.9
아르헨티나	18.28	18.08	19.28	19.03	5.3	△1.3
브라질	22.97	23.19	24.25	24.50	5.6	1.0
EU15	17.75	16.29	17.19	17.18	5.5	△0.1
일본	4.98	5.06	5.03	5.03	△0.6	0.0
중국	19.93	22.58	25.28	25.75	14.0	1.9
수출량	38.67	46.31	48.58	49.17	6.2	1.2
미국	21.90	26.49	26.54	26.94	1.7	1.5
아르헨티나	3.23	4.13	5.10	5.50	33.2	7.8
브라질	8.93	11.16	12.30	12.30	10.2	0.0
기말재고량	26.74	26.88	27.82	27.98	4.1	0.6
미국	9.48	7.90	8.99	8.16	3.3	△9.2
아르헨티나	6.22	5.61	6.73	7.48	33.3	11.1
브라질	6.80	7.45	7.00	6.75	△9.4	△3.6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3, Apr. 10, 2001.

(성명환 mhsung@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이정연 ljj1217@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M 45-9 세계농업뉴스 제9호 (2001. 5)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1년 5월

발 행 2001년 5월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